

남전 불경계 계모형 서사의 북전 불경계 <심청전> 근원설화로의 투입과 완판본 <심청전>의 계모형 서사 형성과정*

권도경
(성결대학교)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뽕떡어머니 공유하는 계모형 서사가 어떻게 <심청전> 속에 편입되게 되었는가의 문제를 규명하고자 했다. 이 아젠다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가 선택한 접근 방법은 뽕떡어머니 공유하는 계모형 서사가 근원설화에서부터 배태된 <심청전>이 완결된 형태를 구성한 이후에 확장되는 과정에서 삽화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는 관점이다.

지금까지 <심청전>의 근원설화로 알려져 온 <전동자설화(專童子說話)>·<법묘동자설화(法妙童子說話)>·<소야희설화(小夜姬說話)>·<목련구모설화(目連救母說話)>·<선우태자설화(善友太子說話)>·<원홍장설화(元洪莊說話)>·<황천의무가설화(黃泉巫歌說話)>·<효녀지은설화(孝女知恩說話)>의 8편을 검토해 본 결과, <전동자설화>·<법묘동자설화>·<소야희설화>·<선우태자설화>·<목련구모설화>·<원홍장설화>의 6편이 북전(北傳)·남전(南傳) 불경계 설화임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심청전>의 불경계 근원설화의 제 계열에 따른 계모형 서사와의 관련성 검토에서 출발했다. 이들 <심청전> 근원설화 6편의 상호관련양상과 전개사를 검토해본 결과 계모형 서사가 특히 모친과 관련된 개안화소(開眼話素)와 일정한 상호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 본고는 판소리학회 제76차 정기학술대회(2015.05.30.)에서 발표되었던 논문임.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심청전> 근원설화의 모친개안화소(母親開眼話素)가 남전(南傳) 불경계 설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심청전> 근원설화 관련 계모형 서사는 이러한 남전 불경계 모친개안화소를 매개로 남전에 대한 북전의 상대적으로 우월한 감화력을 전파하고자 한 북전(北傳) 불경계 설화의 향유배경 속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해당 계모형 맹인개안화소(盲人開眼話素)가 경판계 <심청전>에 투입하여 완판계 <심청전>의 뽕덕어미 서사를 형성해 내게 된 배경을 완판계 <심청전>의 향유공간인 전라도 일대를 중심으로 한 문학지리와의 관련성 속에서 규명해 보았다. 인도 남전계 진경설화(真經說話)가 중국에서 한역된 이후 최종적으로 국내 유입되는 과정에서, 계모의 모해에 직면한 부친의 자식에 대한 자애양육서사(慈愛養育敘事)가 북전 불경계 설화적 특수성과 결합된 결과 부친의 유사맹목(類似盲目)을 개안시키기 위한 자식의 희생효행서사로 재구성된 것이 바로 전라도 일대의 <우목낭상설화(寓目囊箱說話)>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북전 불경계 설화와 남전 불경계 설화의 결합은 18세기 후반기 불교 세계관 체계에서 새롭게 대유행한 신조류였는데, 18세기 후반기부터 전라도 일대에서 판각인쇄 되어 <심청전> 향유사의 새로운 흐름을 형성한 완판본은 이처럼 북전 불경설화와 남전 불경설화가 습합되는 배경 속에서 남전 불경설화의 계모서사가 북전 불경계 설화에 기반한 초기 <심청전>에 투입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심청전>, 근원설화, 계모서사, 남전불경, 북전불경, 완판, <전동자설화>, <법도동자설화>, <소야희설화>, <선우태자설화>, <목련구모설화>, <원홍장설화>, <황천무가설화>, <효녀지은설화>

1. 문제 설정의 방향

뽕덕어미는 독특한 존재다. <심청전>의 일부 이본에서, 그것도 작품의 후반부에만 등장)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히 뽕덕어미를 주인공 심청·심봉사를 포함하여 <심청전>을 구성하는 삼대 필수 캐릭터의 하나로

- 1) 뽕덕어미가 등장하는 것은 경판 중 송동본 계열과 완판본 계열이다. 경판 한남본 계열에는 뽕덕어미가 등장하지 않는다.(<심청전>의 판본을 한남본(경판계열), 송동본(경판계열), 완판본의 세 계열로 분류한 것은 최운식이다. 이에 대해서는 최운식, 『심청전연구』, 집문당, 1982를 참조하기 바란다.)

인식한다. 부분의 확장성이라는 판소리의 장르적 특성과 선인형(善人型) 인물을 부각시켜주는 것이 악인형(惡人型) 인물이라는 인물구성방식의 전형성을 고려한다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뽕덕어멈의 존재감은 쉽게 설명되기 어렵다. 게다가 뽕덕어멈이 등장하지 않아도 한편의 완결된 작품으로 종결되는 <심청전>의 판본까지 존재하며, 이를 근거로 뽕덕어멈이 초기 경판본에서 완판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삽입된 캐릭터라는 연구시각²⁾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뽕덕어멈이 대중에 의해 <심청전>의 핵심 캐릭터로 여겨지는 데는 하등의 별 영향이 없다.

그렇다면 학문이 대중적 인식과 괴리되어 있다는 사실은 논외로 하더라도, 뽕덕어멈이 갖는 대중적인 존재감은 어디서 비롯하는 것일까. 일단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뽕덕어멈이 계모형(繼母型) 인물로 인식된다는 사실이다. 후처의 지위가 전처보다 낮지 않고 출신 신분 또한 높았던 데다 전처의 사후에 주로 외가에서 양육된 전처자식들과 후처가 동처(同處)할 일도 없었던 조선 중기까지, 계모와 전처자식이 격돌하는 계모형 서사는 형성될 기반조차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역사학계의 정설이다. 조선 중기 이전까지는 오히려 재산을 노린 전처자식들이 계모를 괴롭히는 이야기들이 많았으며, 악독한 계모상은 종법적 가족이념의 성립 이후 전처자식과 계모의 동처가 시작된 17세기 이후부터 성립되었다³⁾는 것이다. 악독한 계모에 의해 희생된 가여운 전처자식이란 비극적인 신화는 조선후기에 탄생한 일종의 ‘만들어진 신화’라고 볼 수 있다. 이 만들어진 신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널리 알려져 있는 <장화홍련전>⁴⁾과 <콩쥐팍쥐전>⁵⁾이다.

2) 완판본에 대한 경판본 선행설은 사재동(「심청전 연구서설」, 『한국고전소설』, 계명대 학 출판부, 1974)에 의해서 제기되었고, 경판본에서 완판본으로의 대표적인 이행 지표가 뽕덕어멈이라는 학설은 정하영(「沈淸傳에 나타난 惡人像:뽕덕어멈論」, 『국어국문학』 97, 1987)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3)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들을 참조하기 바람. 정지영, 「장화홍련전:조선후기 재혼가족 구성원의 지위」, 『역사비평』 61, 2002 ; 이종서, 「‘전통적’ 계모관의 형성과정과 그 의미」, 『역사와 현실』 51, 2004.

4) <장화홍련전>에 나타난 악독한 계모에 의해 희생된 가여운 전처자식이란 비극이 조선후기에 탄생하여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일종의 ‘만들어진 신화’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람. 권도경, 「고소설 <장화홍련전> 원형서사의

뽕떡어멈은 여러모로 <장화홍련전>·<콩쥐팥쥐전>에 등장하는 계모와 유사한 캐릭터다. 주인공의 가중 재산을 노리고 후처로 주인공의 집안에 진입(①)하여 전처자식에게 비윤리적인 해악(②)을 끼치다가 전처자식에 의해 징치(③) 당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뽕떡어멈은 심청이 목숨과 맞바꿔서 심봉사에게 남겨준 공양미 삼백석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①)하여 가산을 탕진(②)하고 황후가 된 심청 덕분에 부원군의 지위를 갖게 된 심봉사에게 능지처참(③)을 당한다는 점에서 <장화홍련전>·<콩쥐팥쥐전>과 악인 계모상을 공유한다. 심봉사를 경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주인공에게 가하는 해악성이 <장화홍련전>·<콩쥐팥쥐전>의 계모상 보다 상대적으로 약화 되어 있지만, 직접적으로 징치를 당한다는 점에서는 팥쥐를 통해 간접적으로 징치되는 <콩쥐팥쥐전> 보다 징벌의 심각성이 강화 되어 있다.

이렇게 뽕떡어멈이 대표적인 계모형 고소설들의 그것들과 인물형상을 공유하고 있다고 본다면, 이 지점에서 그 동안 <심청전> 연구사에서 주목되지 않았던 문제 거리가 새삼 도출된다. 뽕떡어멈이 보여주는 계모형 서사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심청전> 속에 편입되게 되었는가에 주목하는 시각이다. 즉, 뽕떡어멈이 공유하는 계모형 서사의 <심청전> 투입 과정 및 배경에 대한 연구가 되겠다.

이 아젠다에 접근하는 방식은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다.

① 뽕떡어멈이 공유하는 계모형 서사가 근원설화에서 판소리계 소설로 이행하는 <심청전>의 초기 형성과정에서부터 투입했다고 보는 관점.

서사적 고정관념과 영화 <장화, 홍련>에 나타난 새로쓰기 서사전략, 『비교문학』 61, 2013.

- 5) <콩쥐팥쥐전>의 근원설화인 <콩쥐팥쥐설화>가 본래 비한족계 동아시아 민족들의 혼례·장례 민속과 관련된 농경 모녀여신 신화 이대기에 기반 한 것이나 조선후기에 가서 계모담이 확장된 혼인담으로 향유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음의 발표문을 참조해주시 바람. 권도경, 「<콩쥐팥쥐 설화>를 모녀 농경신들의 경쟁농경신화 이대 기구조로 보는 새로운 관점과 비한족계 중국 소수민족의 혼례·장례 민속에 나타난 “혼인-죽음 재생”의 순환론적 인식 배경」, 비교민속학회 2015년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2015.05.16.

② 뽕덕어미가 공유하는 계모형 서사가 근원설화에서부터 배태된 <심청전>이 완결된 형태를 구성한 이후에 확장되는 과정에서 삽화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는 관점.

③ 뽕덕어미가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일명 <뽕덕어미 설화>가 초기 <심청전> 형성과정에서부터 근원설화로 존재했거나, 혹은 초기 <심청전> 형성 후에 삽화적으로 적층되었다고 보는 관점.

①은 <심청전>의 근원설화 후보군 중에서 계모형 서사를 포함하고 있는 텍스트를 찾고, 이 유형의 텍스트가 초기 <심청전>의 형성과정 속에 편입되는 과정과 배경을 탐구해 보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 이 관점은 계모형 서사를 단지 삽화가 아니라 희생효행설화(犧牲孝行說話)·맹인개안설화(盲人開眼說話)·인신공희설화(人身供犧說話)·용궁환생설화(龍宮還生說話) 등과 관련된 <심청전>의 근원설화 중 하나로 보는 시각이 된다.

이러한 접근법은 초기 <심청전>을 완판본으로 규정하는 전제 하에서 성립될 수 있다. 왜냐하면 주지하다시피 뽕덕어미 서사가 <심청전>의 가장 초기 본인 경판계 한남본에서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뽕덕어미가 나타나는 것은 완판계이거나 혹은 완판계와 구조가 유사한 경판계 송동본이다. 따라서 완판계 <심청전>에 특히 계모형 서사가 편입될 수 있었던 배경이 규명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오늘날의 전라도 지방에서 향유된 완판본의 문학지리적 배경을 전제로, 원래 있던 것이 탈각되는 방향으로 계모형 화소의 서사화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처럼 계모형 서사가 <심청전>의 주요 근원설화 후보군으로 논의되어 온 희생효행설화·맹인개안설화·인신공희설화·용궁환생설화 중의 하나와 초기 형성기부터 관련되어 있었다는 점을 논증해 낼 수 있다면, 다음의 두 가지 차원에서 새로운 의의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첫 번째는 계모형 서사와 관련성을 지닌 해당 설화를 논자에 따라 부가적인 것으로 분류⁶⁾ 되기도 하는 방계

6) <심청전> 근원화소와 관련화소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i) 희생효행·인신공희 근원설화+맹인개안 관련설화: 김태준
- ii) 인신공희·맹인개안 근원설화: 김동욱

설화(傍系說話) 혹은 관련화소(關聯話素)가 아니라 핵심적인 근원화소 중의 하나로 분류해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다. 선행연구사에서 희생효행설화⁷⁾·맹인개안설화⁸⁾·인신공희설화⁹⁾·용궁환생설화¹⁰⁾를 근원화소 혹은 관계화소로 분류하는 방식은 논자에 따라 각기 다양한데, 화소들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설들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두 번째는 경판본을 초기 <심청전>으로 규정해온 경판본 선행설¹¹⁾과는 달리 뽕떡어미 서사를 포함하고 있는 완판본을 초기 <심청전>으로 규정하는데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다. 즉, 근원설화에 계모형 서사가 투입하여 적층된 완판본이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계모형 설화의 지리적 향유맥락 속에서 먼저 만들어지고, 이 완판본이 전라도와 관련된 계모형 서사의 특정 문학지리와 관련이 없는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탈각된 결과 경판본이 형성되었다는 가설 체계가 된다.

②는 <심청전>의 근원설화 후보군 중에서 좁혀나간 계모형 설화와 관련된 텍스트가 초기 <심청전>에서 후기 <심청전>으로 이행하는 도중 편입되어 서사를 확장시켜 나간 과정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 이 관점은 계모형 서사를 단지 삽화가 아니라 희생효행설화·맹인개안설화·인신공희설화·용궁환생설화 등과 관련된 <심청전>의 핵심적인 근원설화가 아닌 관련설화로 보는 시각이 된다. 즉, 계모형 서사가 경판계 <심청전>의

iii) 인신공희 근원설화+희생효행·맹인개안 관련설화:장덕순

iv) 희생효행·환생·결혼 근원설화+용궁·인신공희 관련설화:김태곤

v) 맹인개안 근원설화+인신공희 관련설화:신동일

vi) 효행구친 근원설화+희생효행·인신공희·용궁·맹인개안 관련설화:사채동

7) 김태준, 「심청전의 연구」,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145-150쪽; 장덕순, 「심청전 연구」, 『국문학통론』, 신구문화사, 1960.

8) 김태준, 「심청전의 연구」,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145-150쪽.

9) 김태준, 「심청전의 연구」,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145-150쪽; 장덕순, 「심청전 연구」, 『국문학통론』, 신구문화사, 1960; 김동욱, 「열두마당의 근원설화 및 성립과정」, 『한국가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61; 김동욱, 「판소리 근원설화 첩보」, 『대동문화연구』3, 대동문화연구소, 1966; 김태곤, 『황천무가연구』, 창우사, 1966

10) 김태곤, 『황천무가연구』, 창우사, 1966.

11) 최윤식, 『심청전연구』, 집문당, 1982.; 정하영, 「沈淸傳에 나타난 惡人像:뽕떡어미論」, 『국어국문학』97, 1987.; 김영수, 『필사본 심청전 연구』, 민속원, 2001.

완성 이후에 희생효행설화·맹인개안설화·인신공희설화·용궁환생설화 등과 같은 근원설화 속에 편입되어 확장된 결과 완편계 <심청전>을 성립시켰다고 보는 가설 체계다.

이러한 접근법에서 주된 논점이 되어야 할 것은 다음의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계모형 서사가 희생효행설화·맹인개안설화·인신공희설화·용궁환생설화처럼 경·완판본을 아울러서 고정적으로 등장하는 근원설화 중 특히 어느 유형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는가다. 즉, 상호관련성 속에서 경판본을 탄생시킨 희생효행설화·맹인개안설화·인신공희설화·용궁환생설화 중 어떤 근원설화 속에 투입하여 완판본을 배대시킬 기반을 어떻게 마련하였는가의 문제가 되겠다. 계모형 서사가 희생효행설화·맹인개안설화·인신공희설화·용궁환생설화 중 어느 한 유형의 전개사 속에서 원래 없던 것이 첨가되는 방식으로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경판본을 형성시킨 희생효행설화·맹인개안설화·인신공희설화·용궁환생설화 중 어느 한 유형과 결합된 계모형 서사가 완판본이 향유된 전라도 일대에서 확인되는가다. 즉, 서울 지역에서 주로 향유되었던 경판본이 전라도 지역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희생효행설화·맹인개안설화·인신공희설화·용궁환생설화 중 어느 한 유형에 투입하여 적층된 것이 계모형 서사라면 이러한 계모형 서사를 지닌 설화가 전라도 일대를 특수한 지리적 향유권으로 하는 계모설화의 특수한 맥락 속에서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희생효행설화·맹인개안설화·인신공희설화·용궁환생설화 중 어느 한 유형의 전개사 속에 첨가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계모형 서사가 특히 전라도 일대로 특정되는 문학지리를 배경으로 확인된다는 사실을 입증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③은 <뽕덕어미 설화>의 존재를 실제로 특정해 낼 수 있어야 성립될 수 있는 관점이다. 만약, <뽕덕어미 설화>의 존재를 찾아낼 수 있다면, 이 <뽕덕어미 설화>가 ①의 초기 <심청전> 형성과정, 혹은 ②의 삽화적 편입과정에서 적층·투입되는 양상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②의 관점에서 <심청전>에 접근한다. 물론, 이 관점은 <뽕덕어미 설화>를 찾아낼 수만 있다면 ③으로 이행될 수 있음을 전체해 둔다. 지금까지 <심청전>의 근원설화로 알려져 온 <전동자설화(專童子說話)>·<법묘동

자설화(法妙童子說話)·<소야희설화(小夜姬說話)·<목련구모설화(目連救母說話)·<선우태자설화(善友太子說話)·<원홍장설화(元洪莊說話)·<황천 무가설화(黃泉巫歌說話)·<효녀지은설화(孝女知恩說話)의 8편을 검토해 본 결과, <전동자설화)·<법묘동자설화)·<소야희설화)·<선우태자설화)·<목련구모설화)·<원홍장설화)의 6편이 북전(北傳)·남전(南傳) 불경계 설화임이 확인되었다.

연구 진행의 프로세스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심청전>의 불전계 근원설화의 제 계열에 따른 계모형 서사와의 관련성을 검토한다. 이들 <심청전> 근원설화 6편의 상호관련양상과 전개사를 검토해보면 계모형 서사가 특히 모친과 관련된 개안화소와 일정한 상호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심청전> 근원설화의 모친개안화소가 남전(南傳) 불경계 설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심청전> 근원설화 관련 계모형 서사는 이러한 남전 불경계 모친개안화소를 매개로 남전에 대한 북전의 상대적으로 우월한 감화력을 전파하고자 한 북전(北傳) 불경계 설화의 향유배경 속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볼 것이다.

다음으로 해당 계모형 맹인개안화소가 경관계 <심청전>에 투입하여 완판계 <심청전>의 뽕덕어미 서사를 형성해 내게 된 배경을 완판계 <심청전>의 향유공간인 전라도 일대를 중심으로 한 문학지리와의 관련성 속에서 확인해 본다. 인도에서 한반도 서남해안 해로를 타고 남전(南傳) 하여 주로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서남해안 지역권 일대에서 향유된 남전 불경계 <우목낭상(禹目囊箱) 설화>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러한 계모형 맹인개안화소와 <심청전>의 적층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목낭상 설화>를 남전 불경계 계모형 맹인개안설화(南傳 佛經系 繼母型 盲人開眼說話)로 규정하고, 남전 불경계 계모형 맹인개안설화의 경관계 <심청전> 근원설화로의 투입과 완판계 <심청전>의 탄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II. <심청전>의 불전계 근원설화의 제 계열과 계모형 서사의 관련성

검토대상 텍스트는 선행연구사에서 <심청전> 근원설화로 빠짐없이 거론

되는 <전동자설화(專童子說話)>·<법묘동자설화(法妙童子說話)>·<소야희설화(小夜姬說話)>·<목련구모설화(目連救母說話)>·<선우태자설화(善友太子說話)>·<원홍장설화(元洪莊說話)>의 6편이다. 이 중에서 <전동자설화>·<법묘동자설화>·<목련구모설화>·<선우태자설화>의 다섯 편이 국외 전래설화이고, 국내 토착설화는 <원홍장설화> 한 편뿐이다.

국의 설화 다섯 편 중에서 <전동자설화>·<법묘동자설화>·<목련구모설화>·<선우태자설화>의 네 편이 인도 불전계 설화로 분류되어 왔는데, <전동자설화>·<선우태자설화>는 북전 불경계, <목련구모설화>는 남전 불경계, <법묘동자설화>는 남전 불경계와 관련된 북전 불경계 설화다. <소야희설화>와 <원홍장설화>는 불전계 설화로 분류되어오지 않았으나, 전자는 일본에 전래되는 불전계 설화이면서도 <법묘동자설화>처럼 남전 불경계와 관련된 북전 불경계 설화이고, 후자는 국내 토착설화이면서도 북전 불경계 유사위경설화(類似僞經說話)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중에서 실제 인도 진경(眞經)에 실려있는 진경설화(眞經說話)는 <선우태자설화> 한 편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진경에 가탁하여 국내외에서 만들어진 위경설화(僞經說話)이거나 혹은 유사위경설화이다.

여기서 모친과 관련된 서사주체의 자기실현의 문제는 남전 불경계 <심청전> 근원설화에서만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북전 불경계 <심청전> 근원설화는 부친과 관련된 서사주체의 자기실현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파악된다. 계모형 서사는 국외 <심청전> 근원설화와의 상호관련성 속에서 확인되는데, 계모형 북전(北傳) 불경계 근원설화에 기반한 희생효행 자기실현설화가 남전 불경계 근원설화의 모친 관련 개인화소를 수용하여 계모형 서사로 확장함으로써 북전 불경계의 감화력을 입증하고자 하는 불전계 설화 향유의식의 배경 속에서 탄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1. 북전 불경계

1) <전동자설화>

김태준의 『조선소설사』에서 인도 불전계 근원설화로 언급된 이래, <전동자설화>가 <심청전>의 근원설화 중의 하나라는 학설은 대체로 큰 흔들림

없는 권위를 유지해 왔다. 우선, 김태준이 소개한 <전동자설화>의 내용을 제시한다.

[자료1] 예전 天竺香喜國에 專童子라는 美少年이 있었다. 어려서 母親을 잃고 貧苦와 老病으로 장님된 아버지를 섬겨서 孝心이 敦篤해야 일즉 큰 飢饉이 있을 때에 慈善長者法妙의 집에 八萬四千人의 施行이 있음을 듣고 盲父를 이끌고가서 賑恤을 받았으나 突然히 大願을 發하여 萬一 아버지의 眼精을 恢復할 수 있다면 後日 富貴한 때에 法妙長者처럼 慈善을 根本으로 하고 萬僧供養을 할 것을 盟誓하다가 悲痛한 끝에 氣絶하여 버렸다. 이 至孝는 佛天을 感動하여 冥府의 閻王은 다시 人間으로 還送하기를 命하였다. 그럼으로 童子는 급작히 蘇生하니 愛子の 송장을 안고 기뻐서 처울든 老父는 더할 수 없이 기뻐서 童子가 念佛하는 ‘南無阿彌陀佛’이라는 소래 한 마디에 盲父의 눈은 다시 열리고 童子는 法妙長者의 뒤를 নিয়ে 어느 地方의 長官까지 되었다. 現生安穩·後生善所는 念佛의 功이다 云云.¹²⁾

김태준이 소개한 바에 따르면, [자료1]의 <전동자설화>는 <심청전>과 동일하게 서사주체인 맹인의 자식이 희생효행으로 자기실현을 한 결과 부모의 개안을 이뤄내는 형태로 서사가 짜여있음을 알 수 있다. 개안의 구체적인 형태도 <심청전>과 동일하게 부친개안(父親開眼)이다.¹³⁾ 즉, <전동자설화>의 희생효행으로 인한 자기실현과 부친개안의 서사에서 성별을 여성으로 바꾼 형태가 바로 <심청전>이라는 것이다. 다만, 차이점은 <심청전>의 뽕덕어미에 해당하는 계모형 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다 인신공희 화소도 없는데 있다.

이 <전동자설화>는 지금까지 실체가 확인되지 못했다. 김태준이 서지 정보

12) 김태준, 「심청전의 연구」,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145-150쪽.

13) 김태준 역시 <전동자 설화>와 <심청전>의 차이를 “(‘작자’)는 專童子(전동자)의 代身(대신)에 純眞(순진)하고 熱情(열정)있는 사람 艷美(염미)하고도 才德(재덕)있는 사람 卽沈淸(즉심청)이라는 女性(여성)을 特(특)히 選擇(선택)하였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를 제시해 놓지도 않았을 뿐더러 후속연구사에서 텍스트의 소종래가 확인된 바도 없다. 주인공 전동자가 직위를 계승했다고 하는 법묘장자(法妙長者)란 인명(人名)과 유사한 묘법장자(妙法長者)란 인물이 『묘법연화경(妙法蓮花經)』, 즉 『법화경(法華經)』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텍스트를 『묘법연화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전동자(專童子)란 인명도 찾지 못했을 뿐더러, 김태준이 제시한 <전동자 설화>의 내용과 동일한 텍스트도 찾지 못했다.

대신, 법묘장자란 인명과 『묘법연화경』 사이의 유사성으로 미루어보아 <전동자설화>가 인도에서 북방루트를 통해 동북아시아로 전래되어 대승불교(大乘佛敎)를 형성한 북전불경(北傳不經)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¹⁴⁾이 북전불경의 대표적인 불경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즉, <전동자설화>가 북전 불경계 『묘법연화경』과 관련성을 가진 유사위경설화일 가능성이 있다.

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살펴본 결과 김태준이 봤다고 하는 <전동자설화>의 전거를 찾을 수 있었다. 예상외로 김태준이 참조한 <전동자설화>는 인도에서 전래된 진경(眞經) 소재 불전설화가 아니라, 13세기 일본에서 편찬된 『사취백인연집(私聚百因緣集)』 소재 불교설화였다. 『사취백인연집』은 일본 정토종(淨土宗) 계열 종단에 속하는 승려 왕신(往信)이 1257년에 개인적으로 편찬한 사찬 설화집이다. 정토종은 대표적인 북전의 대승불교 종파의 하나로, 왕신은 정토종의 교리를 설법으로 전파하는 창도승(唱導僧)이었다. 불교설화를 통해 정토종의 불법을 설파하기 위해 『사취백인연집』을 편찬한 것으로

14)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은 북방 루트를 통하여 전래된 산스크리트어 원전 불경을 한역(漢譯)한 것이기 때문에 북전(北傳) 불경으로 분류된다. 원경(原經)인 산스크리트어 경명(經名)은 『삿다르마푼다리카-슈트라(Saddharmapundarīka-sūtra)』이다. 이 『삿다르마푼다리카-슈트라』를 서진(西晉)의 축법호(竺法護)는 『정법화경(正法華經)』(10권27품)로 번역하였고, 요진(姚秦)의 구마라집(鳩摩羅什)은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7권 27품), 수(隋)의 사나굴다(闍那崛多)·달마굽다(達摩笈多)는 『첨품묘법연화경(添品妙法蓮華經)』(10권28품)으로 각각 번·공역하였다. 원래 『삿다르마푼다리카-슈트라(Saddharmapundarīka-sūtra)』의 “sad”와 “dharma”는 각각 “정(正)”과 “법(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법(正法)”을 뜻하는 것인데, 이를 구마라집은 “묘법(妙法)”으로 의역한 것으로, 이 구마라집본 번역본이 가장 일반화 되었다. 이러한 『묘법연화경』을 약칭한 것이 흔히 알고 있는 『법화경』이다.

보인다.

그런데 정토종은 본래 『법화경』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탄생한 대승불교 종파다. 6세기 전후 중국에서 탄생한 정토종은 창시자와 대성자가 『법화경』을 독송하던 중 깨달음을 얻어 정토종으로 대중화 시킨 것이고, 일본 정토종은 8세기경 일본에 전파된 천태종에서 분파되어 성립된 것으로, 천태종의 정전이 바로 『법화경』이다. 따라서 왕신이 정토종의 교화를 위해 찬집한 『사취백인연집』은 『법화경』에 가탁한 유사위경설화집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취백인연집』 속에는 여우설화를 비롯한 일본 고래(古來)의 토착설화들이 인도를 배경으로 한 불교설화들과 함께 실려 있다.¹⁵⁾ 『사취백인연집』은 총 9권인데, 인도·중국·일본의 3부로 나누어 각국을 배경으로 하는 설화들을 분류¹⁶⁾해 놓았다. 김태준이 봤다고 하는 <전동자설화>는 이 『사취백인연집』 제3권에 열일곱 번째 이야기로 등장하는 <전동자(傳童子)>다.¹⁷⁾

현재 확인해 본 바로는 『사취백인연집』본 <전동자(傳童子)>는 [자료1]과 내용이 동일하다.¹⁸⁾ 김태준은 북전불경이 북방 루트를 통해 일본에 전래된 이후 만들어진 13세기 일본 유사 위경설화집에 소재한 텍스트를 <심청전>의 근원설화 중의 하나가 되는 인도 불전계 설화로 소개했던 것이다. 이처럼 북전 불경계 위경설화집에 찬집되어 있는 <전동자설화>에는 계모형 화소가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2) <선우태자설화>

<선우태자설화>는 선행연구사에서 김태준에 의해 <심청전> 관련설화로 제시된 <적성의전>의 근원설화¹⁹⁾로도 알려져 왔지만 둘은 상호 계열이 다르

15) 『사취백인연집』에는 <시쥬우하쿠닌넨슈우> 같은 일본 여우설화 등이 실려있다.

16) “凡九,日僧住信著於正嘉元年,全書分爲印度中國日本等三部分,類聚有關佛教之種種因緣事蹟而成,共收一四七則,其第七卷當麻曼茶羅事,及第八卷法然上人事蹟之資料,頗受重視,收於大日本佛教全書”,『私聚百因緣集』,藤田德太郎等編,『日本精神文化大系』,金星堂,1936.

17) 「傳童子」,往信,『私聚百因緣集』第三卷 第十七話.

18) 김태준본 「전동자설화」, 『사취백인연집』본 <전동자설화>, <심청전>의 구체적인 비교는 후속 연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19) 인권환, 「적성의전 근원설화연구(根源說話研究)」, 『인문논집』8, 1967.

다. 일단, <선우태자설화>는 『대방편불보은경(大方便佛報恩經)』 제6권 <악우품(惡友品)>에 실려 있다. 일반적으로 『보은경(報恩經)』이라고 하는 『대방편불보은경』은 『법화경』·『유마경(維摩經)』·『화엄경(華嚴經)』과 함께 대표적인 북전 경전 계열에 속한다. 『보은경』은 인도에서 북방 루트를 따라 전래되는 중간 기착지인 돈황석굴의 벽화에 이들 여타의 북전 불경들과 함께 변상도(變相圖)·본생도(本生圖)·불전도(佛傳圖)로 출현하는데, 돈황석굴에 그려져 있는 『보은경』의 본생도가 바로 <선우태자 설화>에 해당하는 <악우품>이다. 3세기 후한(後漢) 시대에 중국에서 한역되었던 <선우태자 설화>는 15세기 지금의 서울에서 언해되어 『월인석보(月印釋譜)』에 수록되었다.

<선우태자설화>는 민중적인 보시행(普施行)을 왕업으로 실현하기 위해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는 이니시에이션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심청전>과 자기실현구조를 공유하고 있지만 희생효행화소(犧牲孝行話素)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는다. 서사주체가 여성도 아니다. 대신, 개안화소는 <심청전>과 공유하고 있는데, 부친개안(父親開眼)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심청전>과 같지만 여타의 다른 구체적인 양상은 차이를 보인다. 즉, 개안이 서사주체의 자기실현 결과로 주변인물에게 나타나는 <심청전>과 달리 서사주체 자체가 자기실현 과정에서 개안을 이룰 뿐 아니라, 서사주체와 주변인물 모두 맹안(盲眼)이 후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부친개안과 함께 모친개안도 함께 이루어진다. 서사주체와의 상호관계가 모친 보다는 주로 부친 쪽에 초점화가 맞춰져 있기는 하지만 모친을 대상으로 한 문제에도 서사가 아주 닫혀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우태자설화>에는 계모형 화소가 등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계모형 화소가 부재한 북전계 불경 소재 불전설화들에서 개안을 포함하여 서사주체와 주된 서사적 관계를 맺는 주변인물이 모친 보다는 주로 부친 쪽에 집중되어 있음에 주목해 주기 바란다.

이 <선우태자설화>가 수록된 경전이 북전이 아니라 남전(南傳)계가 되면, 서사주체의 개안과 관련된 주변인물이 양친이 아니라 모친으로 초점화 되는 차이가 확인된다. 남전불경(南傳佛經)은 기원전 3세기 아쇼카(Asoka)왕 때 인도에서 스리랑카로 전해져 오늘날의 동남아시아 지역인 미얀마·태국·캄보

디아 등지에서 향유된 소승불교경전(小乘佛敎經傳)을 말한다. 고대 인도어인 팔리 (Pali)로 쓰여졌기 때문에 팔리어 경전이라고도 하는데, 김태준이 <심청전>의 방계설화로 언급한 <적성의전>의 근원설화가 되는 <선사태자입해품(善事太子入海品)>²⁰⁾이 바로 이 남전계 불경인 『현우경(賢友經)』에 수록되어 있는 텍스트이다.

남전계 불경이 북전계에 선행하며 남전계 불경을 한역한 것이 북전계 불경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서사주체의 개안을 통한 자기실현이 모친을 상대로 초점화 되는 『현우경』계 <적성의전> 소재 <선사태자입해품>이 북전계 설화들의 상호관계도 속에서는 더 고행(古型)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북전계 불전설화들이 주로 부친을 상대로 한 개안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은 고행인 남전계 불전설화들이 북방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변이 혹은 취사적인 선택으로 볼 가능성이 생긴다. 즉, 앞서 살핀 <악우품>본 <선우태자설화>에서 서사주체의 주된 상호관계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친의 개안에 모친개안이 병기 되어 있는 것은 남전계 불경이 한역되어 북전계를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모친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선사태자입해품>의 남은 흔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심청전>의 근원설화가 북전계나 남전계나가 중요한 이유는 계모형 서사로 이행될 수 있는 모친에 대한 문제가 바로 남전계 불전설화에서 주로 집중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3) <원홍장설화>

<원홍장설화>는 김태준에 의해 처음으로 <심청전>의 직접적인 근원설화로 제시²¹⁾된 이래 김동욱에 의해 직계설화로서의 위상이 재확인²²⁾되었으며, 현재로서는 연대 확인이 가능한 중에 가장 이른 시기에 성립된 최고(最古)²³⁾

20) 김현양, 「조선조 후기 `華夷觀'의 동향과 <적성의전>」, 『연세어문학』 25, 1993.

21) 김태준,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22) 김동욱, 「열두마당의 근원설화 및 성립과정」, 『한국가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61 ; 김동욱, 「판소리 근원설화 첩보」, 『대동문화연구』 3, 1966.

23) <원홍장설화>가 실려있는 <옥과현성덕산관음사적(玉果顯聖德山觀音寺事蹟)> (『朝鮮寺刹史料』, 조선총독부, 1911)을 보면 간기가 “晉國永康丁亥”로 기록되어 있는데, 진나라 영강 년간은 300년이고, 정해 년간은 267년이기 때문에 시기를 확정지을 수 있는 다른 근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3세기를 <원홍장설화>의 성립시기로

의 <심청전> 근원설화이다. 서사주체가 여성인 민녀(民女)로 같은 데다 개인 화소가 부친개안의 형태로 되어 있고, 용궁재생화소를 제외하면 희생효행화소·인신공희화소·개인화소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언급되어온 제반 근원설화 중에서 경판계 한남본 <심청전>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완판 <심청전>과 비교해서는 용궁재생화소 외에도 계모화소가 부재하다.

그런데 이처럼 개인이 부친과 관련되어 있고 계모화소가 부재한 <원홍장설화>는 북전 불경계에 속하는 관음신앙과 관련되어 있다. <원홍장설화>는 원홍장이 중국에서 보낸 관음상을 전라도 옥과현의 성덕이란 처녀가 봉안하여 관음사를 세웠다는 관음사연기설화로 전해지고 있는데, 관음신앙의 근본 경전인 『관음경(觀音經)』은 중국 서진(西晉)의 승려 담마라참(曇摩羅讖: 353~433)이 『법화경(法華經)』, 즉 『묘법연화경』의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觀世音菩薩普門品)」을 독립된 경으로 만든 중국 위경이다. 『법화경』이 북전 불경계 인도 진경이니 『관음경』은 4세기경의 북전계 위경이 되며, <원홍장설화>는 북전 불경계 위경설화가 되는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원홍장설화>가 『관음경』을 매개로 북전 불경인 『법화경』과 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전 불경계 위경설화인 <원홍장설화>는 부친개안을 매개로 희생효행을 통한 자기실현을 완성하며 계모형 서사는 내재해 있지 않는데, 이는 앞서 살핀 『법화경』에 가탁한 13세기 북전 불경계 위경설화인 <전동자>와 서사주체의 성별만 다를 뿐 동일한 형태다. 즉, 북전 불경인 『법화경』 계열의 <심청전>의 근원설화는 개인이 부친과 관련되어 있으며 초기 경판본 <심청전>처럼 계모형 서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홍장설화>의 향유지리권이 전라도 일대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북전 불경계 설화가 계모형 서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갔다는 관련 향유배경을 입증한 위에 전라도 일대를 향유지역권으로 하는 계모형 설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때, <원홍장설화>를 핵심 근원설화로 성립된 경판계 한남본 <심청전>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계모형 화소가 투입하여 완판본 <심청전>이 형성되었다는 가설을 성립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일단 지적해두고 넘어가기로 한다.

잡을 수 있을 것이다.

2. 남전 불경계 : <목련구모설화>

<목련구모설화>는 <심청전> 근원설화 주요 후보군 중에서 위치가 특이하다. 김태동에 의해 <심청전> 근원설화로 거론되지 못하고 사재동에 의해 비교적 최근에서야 <심청전> 근원설화로 거론²⁴⁾되었지만 불전과의 관련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먼저 언급된 근원설화가 된다. 『목련경(目蓮經)』에 들어있는 불전설화로 알려져 왔는데, 실은 이 『목련경』은 인도 진경이 아니다. 5세기 중국에서 성립된 위경 『우란분경(盂蘭盆經)』에서 <목련전기(目蓮傳記)>를 독립시켜서 10세기경 중국에서 법천(法天)이 만든 『불설목련경(佛說目蓮經誡)』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11세기 고려조에 성립²⁵⁾된 한국 위경이다. 게다가 당초 『목련경』의 내용을 가탁한 <목련전기>들은 인도 남전계 진경인 『아함경(阿含經)』에 소재한 이야기들이다. <목련구모설화>는 인도 남전계 위경설화가 되는 것으로, 성립시기는 <원홍장설화> 바로 다음에 위치한다.

이처럼 남전 불경계 위경설화인 <목련구모설화>는 남성인 서사주체가 지옥에 가는 죽음으로써 모친의 악업을 구제하는 희생효행을 통해 불성을 완성하는 자기실현담으로 되어 있다. 서사주체의 희생효행을 통한 자기실현이 모친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북전 불경계 위경설화인 <원홍장설화>나 <전동자설화>와는 다르고 같은 남전 불경계 위경설화인 <선사태자입해품>과는 같은 계열성을 보여준다. 다만, 개안의 문제가 등장하지 않는 것은 <심청전>에 대하여 <목련구모설화>가 갖는 차별성이다. 남전 불경계 위경설화인 <선사태자입해품>에서 개안주체가 부친·모친의 어느 쪽도 아닌 남성인 서사주체 본인으로 설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목련구모설화>의 개안화소 부재는 개안화소가 <원홍장설화>나 <전동자설화>처럼 부모개안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남전 불경계 위경설화의 계열적 특수성 내부에 위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신, <목련구모설화>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모친이 악모(惡母)로 설정되

24) 사재동, 「심청전 연구서설」, 『어문연구』 7, 1971.

25) 조순향, 『한국판 부모은중경연구(父母恩重經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7 ; 김성수, 「목련경(目連經)의 성립경위」, 『도서관학논문집』 10, 1983.

어 있다는 사실이다. 모친의 악인성(惡人性)은 <원홍장설화>나 <전동자설화>와 같은 복전 불경계 위경설화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개안의 문제가 모친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선태자입해품>과 같은 남전 불경계 위경설화의 계열적 특수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목련구모설화>의 악모는 <심청전>의 착한 친모 꺾어와 악한 계모 뺨댈어뎌므로 분화되어 계모형 서사를 형성시킬 수 있는 기반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남전 불경계와 관련된 복전 불경계

1) <법묘동자설화>

<법묘동자설화>는 김태준이 <전동자설화>와 함께 언급²⁶⁾한 것으로 미루어 개안화소를 내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작품이다. <전동자설화>와는 달리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 동안 더욱 더 실체가 묘연한 작품으로 인식되어 왔다. 우선, <법묘동자설화>와 인명에서 관련성이 있는 텍스트는 『묘법연화경』 속에서 찾을 수 있었다.

[자료2] ① ㉞ 그때 마하가섭이 거듭 이 뜻을 펴려고, 계(偈)로 설명하여 말하였습니다.

④ 우리들은 금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미증유를 얻어 환희로 뛰었나이다. 부처님께서 설하시되 성문도 마땅히 부처가 되리라 하시니 무상의 보취를 구하지 않고서 저절로 얻었나이다. 비유컨대 마치 동자가 유치무식하나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하였다가 멀리 타향에 이르러 여러 나라를 두루 떠돌다, 오십 여년이읍니다. 그 아버지가 걱정하는 생각에 사방으로 찾아다니고 찾아다니다가 이미 지쳐서 한 성에 갑자기 머물며 사택을 조립하여 오욕을 스스로 즐겼나이다.

그 집은 거부로 여러 금은이 많고, 차거(車庫), 마노(瑪瑙), 진주, 유리, 코끼리, 말, 소, 양, 연여(輦輿), 차승(車乘), 전업동복(田業僮僕)과 인민들이 많으니, 나가고 들어와 이익이 불어남이 타국에까지 두루 하며, 장사꾼, 고인이 없는 곳이 없고, 천만억중이

26) 김태준,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둘러싸고(圍繞) 공경하며, 항상 왕이 아끼는 생각을 하니, 군신호조가 모두 같이 높이고 존중하였나이다. 모든 연고 때문에 왕래하는 자가 많고 호부(豪富)는 이와 같으며 대역(大力)과 세(勢)가 있었나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늙어서, 더욱 자식을 근심하고 생각함이 늘어나, 날을 새워 오직 생각하니, 죽을 때를 장차 이르러, 치자(癡子)가 나를 버린 지 오십여 년이니 창고에 저장된 모든 재물을 어찌할 것인가? 그때 가난한 아들이 의식을 찾아서 마을로부터 마을에 이르고, 나라로부터 나라에 이르러서, 혹은 얻은바가 있고 혹은 얻은바가 없으니, 배고프고 허약하여 몸에 창선(瘡癩)이 생기고 점차 몸소 꺾으면서, 아버지가 머무는 성에 이르러 품 팔이로 전전하다, 마침내 아버지의 집에 이르렀나이다.

그때 장자는 그 문안에 대보장을 치고 사자좌에 앉아서, 권속에 둘러싸여 모든 사람이 받들어 호위하고, 혹 금은보물을 계산함이 있고 안에서 나오는 재산을 책에 주석(註釋)하여 기록하였나이다. 궁자가 아버지를 보니 부귀존엄 하여, 국왕이거나 국왕등과 같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스스로 궤이하다하고 무슨 연고로 여기에 이르렀는가 하였나이다.

다시 스스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가 만약 오래 머물며, 혹 보이면 퍽박하거나, 강제로 몰아서 일하게 할 것이다. 생각이 이에 멈추자, 달려가더니 가난한 마을이 없을까 차문(借問) 하며, 가서 품 팔아 일하려 하였나이다. 장자가 이때에 사자좌에 있더니 멀리서 그 아들이 보이니, 말없이 알아차리고 곧 사자를 보내서 쫓아가 잡아서 인솔하여 오라하였다.

궁자는 놀라 부르짖으며, 혼미하고 빈민하다 땅에 쓰러져, 이 사람이 나를 잡으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어찌 의식이 필요하다 하여, 나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하였을까 하였나이다. 장자는 아들이 어리석고 못나고(愚癡) 졸렬(狹劣) 하여, 나의 말을 믿지 않고, 이 아비를 믿지 않을 것을 알고, 곧 방편으로서 다시 다른 사람을 보냈는데 애꾸눈이(眇目)에 앉은뱅이(矬陋)이고 위덕(威德)이 없는 자에게 네가 가히 말을 해주면서, 이르기를 마땅히 서로 함께 일하고 모든 똥과 더러운 것들을 치워서 모든 집을 깨끗이 하라 하였나이다. 장자가 들창(牖)으로 늘상 그 아들을 보니, 아들은 우매하고 용렬하여 비루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

각하였나이다.

이에 장자가 헤지고 더러운 옷을 입고, 제분기(除糞器)를 들고 자식이 있는 곳으로 도착하여, 방편으로 가까운 곳에서 말하기를 하여금 열심히 일하라. 그러는 동안에 너의 값어치를 더하여 주되, 모두 칠할 충분한 기름과 충분한 음식과, 따뜻이 할 깔개(薦)와 자리를 줄 것이니, 이렇게 충고의 말을 하면서 너는 마땅히 부지런히 일하라 하고, 또 부드러운 말로서 마치 내 아들과 지혜 있음으로 점차 입출케 하여, 20년이 지나서 집안일을 하게 하고, 그 금은과 진주, 파리의 모든 물건의 출입을 다 시켜서 주관하도록 하였나이다. 여전히 문밖에 처하여 초암에 머물러 자고, 스스로 가난한 직업이라 생각하며 나는 이런 물건이 없다고 하였나이다.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을 알고 재물을 주고자 하고, 곧 친족, 국왕, 대신, 찰리거사를 모으고 이 대중에게 말하여 이는 나의 아들이라, 나를 버리고 타행하여 오십년이 지났고 아들을 본 이래로부터 이미 20년이며, 옛날 모성에서 이 아들을 잃어버렸으며, 찾으려고 두루 다니다가 마침내 여기에 이르러 왔도다. 무릇 내 소유인 사택과 인민을 다 주어서 그 쓰는 바를 마음대로 하도록 맡길 것이다.

아들이 생각하되 옛날에 가난하고 뜻의 하열 하였는데, 지금 아버지의 있는 곳에서 큰 진보를 얻고, 아울러 사택과 일체 재물을 얻고 미증유를 얻었다고 매우 기뻐하였나이다. 부처님께서도 또한 이와 같아서, 우리가 작은 것을 즐거움을 아시고 너희들이 부처가 되리라는 말씀을 일찍이 설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설하시되, 모든 무루(無漏)법을 얻어서 소송인 성문제자를 성취한다 하셨나이다.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칙하시되 최상도를 설하시고 이것을 닦고 익히는 자는 마땅히 성불을 하리라고 하셨나이다.

㉔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았으나 대보살을 위하여 모든 인연과 갖가지 비유, 약간의 언사로써 무상도를 설하였나이다. 모든 불자 등이 우리를 따라 법문을 듣고 일야로 생각하고 정근 수습 하였나이다, 이때 모든 부처님께서 곧 그 수기를 주시었으니, 너희들은 내세에 부처가 될 것이다 하시고, 일체제불의 비장의 법을 다만 보살을 위하여 그 진실 된 사실을 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진실로 중요함을 설하지 않으셨나이다. 마치 저 궁자가 그 아비를 가까이하고 비록 모든 물건을 주관하였으나 마음으로는 취하려하지 않은 것과 같이, 우리들이 비록 불법의 보장을 설하였으나, 스스로 희망함이 없는 것이 또한 다시 이와 같나이다. 우리들은 안에서 번뇌를 떨하는 것이 오직 이일을 마쳤으므로 죽하다고 자위하여 다시는 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만약 불국토를 청정히 하고 중생을 교화함을 듣더라도 모두 즐거움이 없었나이다. 왜 그런가 하면, 일체 제법이 모두 다 공적하고 무생무멸이고 무대무소하고 무루무위 한 것이니 이와 같이 생각하며 희락(喜樂)을 내지 않았나이다.²⁷⁾

- 27) “爾時摩訶迦葉欲重宣此義，而說偈言，我等今日，聞佛音教，歡喜踴躍，得未曾有，佛說聲聞，當得作佛，無上寶聚，不求自得，譬如童子，幼稚無識，捨父逃逝，遠到他土，周流諸國，五十餘年，其父憂念，四方推求，求之既疲，頓止一城，造立舍宅，五欲自娛，其家巨富，多諸金銀，碑磔瑪瑙，真珠琉璃，象馬牛羊，輦輿車乘，田業僮仆，人民衆多，出入息利，乃遍他國，商估賈人，無處不有，千萬億衆，圍繞恭敬，常爲王者，之所愛念，群臣豪族，皆共宗重，以諸緣故，往來者衆，豪富如是，有大力勢，而年朽邁，益憂念子，夙夜惟念，死時將至，癡子捨我，五十餘年，庫藏諸物，當如之何，爾時窮子，求索衣食，從邑至邑，從國至國，或有所得，或無所得，饑餓羸瘦，體生瘡癬，漸次經歷，到父住城，備賃展轉，遂至父舍，爾時長者，於其門內，施大寶帳，處師子座，眷屬圍繞，諸人侍衛，或有計算，金銀寶物，出內財產，注記券疏，窮子見父，豪貴尊嚴，謂是國王，若國王等，驚怖自怪，何故至此，覆自念言，我若久住，或見逼迫，強驅使作，思惟是已，馳走而去，借問貧里，欲往傭作，長者是時，在師子座，遙見其子，默而識之，卽敕使者，追捉將來，窮子驚喚，迷悶躓地，是人執我，必當見殺，何用衣食，使我至此，長者知子，愚癡狹劣，不信我言，不信是父，卽以方便，更遣餘人，眇目矧陋，無威德者，汝可語之，云當相雇，除諸糞穢，倍與汝價，窮子聞之，歡喜隨來，爲除糞穢，淨諸房舍，長者於牖，常見其子，念子愚劣，樂爲鄙事，於是長者，著敝垢衣，執除糞器，往到子所，方便附近，語令勤作，既益汝價，竝塗足油，飲食充足，薦席厚暖，如是苦言，汝當勤作，又以軟語，若我子，長者有智，漸令入出，經二十年，執作家事，示其金銀，真珠玻璃，諸物出入，皆使令知，猶處門外，止宿草庵，自念貧事，我無此物，父知子心，漸已廣大，欲與財物，卽聚親族，國王大臣，刹利居士，於此大衆，說是我子，捨我他行，經五十歲，自見子來，已二十年，昔於某城，而失是子，周行求索，遂來至此，凡我所有，舍宅人民，悉以付之，恣其所用，子念昔貧，志意下劣，今於父所，大獲珍寶，並及舍宅，一切財物，甚大歡喜，得未曾有，佛亦如是，知我樂小，未曾說言，汝等作佛，而說我等，得諸無漏，成就小乘，聲聞弟子，佛敕我等，說最上道，修習此者，當得成佛，我承佛教，爲大菩薩，以諸因緣，種種譬喻，若干言辭，說無上道，諸佛子等，從我聞法，日夜思惟，精勤修習，是時諸佛，卽授其記，汝於來世，當得作佛，一切諸佛，祕藏之法，但爲菩薩，演其實事，而不

② 印度의 專童子 法妙童子의 전설이 넘우도 이와 酷似 하니 專童子의 傳説은 다음과 갓트다.²⁸⁾

[자료2]는 <궁자유(窮子喻)>라는 불전설화다.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의 제4권 <신해품(信解品)>에 실려 있다. 부처님의 정법(正法), 즉 묘법(妙法)을 중생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해 묘법장자(妙法長者) 부자의 사례를 설법의 예시로 든 것이다. [자료2]가 액자식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자료2]-㉗-㉘의 액자들 속에 들어있는 [자료2]-㉑가 바로 묘법장자 부자에 관한 이야기이다. 텍스트 내에서 묘법장자의 아들은 시종일관 동자(童子)로 칭칭되고 있다. 묘법장자의 아들인 동자이니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묘법동자(妙法童子)다. 김태준이 『조선소설사』에서 <전동자 설화>와 함께 언급했으나 실체를 찾을 수가 없었던 바로 그 묘법동자에 관한 이야기, 즉 <법묘동자 설화>와 가장 가까울 수 있는 <묘법동자설화>일 수 있다.

하지만 [자료2]-㉑를 보면 김태준의 애초 설명과는 내용이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김태준의 설명과는 달리 묘법장자가 맹인으로 설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묘법동자가 효자도 아니다. 오히려 게으르고 어리석어서 아버지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궁자(窮子)가 되어 귀향한 묘법동자를 지혜로운 아버지 묘법장자가 계도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다. 서사주체가 묘법동자가 아닌 묘법장자인 것이다. 묘법동자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일하게 찾을 수 있었던 이야기는 김태준 이래로 <심청전> 선행연구사에서 이어져온 바와 달리, 희생 효행 화소를 지니고 있지도 않고 개안화소를 지니고 있지도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본질적으로 『묘법연화경』의 제4권 <신해품>에 실려있는 <궁자유>는 <묘법장자설화>로 명명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심청전> 근원설화에 대한 선행연구사에서는 <법묘동자 설화>

爲我，說斯真要，如彼窮子，得近其父，雖知諸物，心不希取，我等雖說，佛法寶藏，自無志願，亦復如是，我等內滅，自謂爲足，唯了此事，更無餘事，我等若聞，淨佛國土，教化衆生，都無欣樂，所以者何，一切諸法，皆悉空寂，無生無滅，無大無小，無漏無爲，如是思惟，不生喜樂。” <窮子喻>，『妙法蓮華經』，<信解品> 第四。

28) 김태준, 「조선소설사」 36, 『동아일보』 1931.01.13., 4쪽.

의 실체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법묘(法妙)”를 “묘법(妙法)”의 오기로 이해한 듯 하다.²⁹⁾ 선행연구사를 정리해놓은 국문학 백과사전들에서는 현재 김태준이 <심청전>의 인도 불전계 근원설화로 <전동자 설화>와 함께 언급해놓은 작품을 <묘법동자 설화>로 바꾸어서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자료2]-①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묘법연화경』 소재 <묘법장자설화>에 해당하는 작품은 [자료2]-②에서 보듯 김태준이 <전동자 설화>와 나란히 <심청전>의 인도 불전계 근원설화로 제시했다고 보기에는 적합지 않다.

그런데 김태준이 『조선소설사』에서 제목만 언급해두었던 “법묘동자(法妙童子)”와 동일한 제목을 지닌 불교계 설화가 일본 중세문학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15세기 후반기 일본 무로마치시대 후기 그림책으로 존재하는 <법묘동자(法妙童子)>가 바로 그것이다. <법묘동자>는 상·중·하의 총 3책으로 되어 있다. <법묘동자>의 이본 서지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직접 조사한 3종 이본의 서지와 공통된 줄거리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3] <法妙童子(ほうみょうどうじ)>

- ①<法妙童子(ほうみょうどうじ)>, 袋綴本 3冊, 29・0×23・7センチの大型奈良絵本, 絵は、上冊7図・中冊8図・下冊6図, 紺地金箔散らし金泥表紙。料紙は鳥の子, 関与三兵衛旧蔵本, 国文学研究資料館.
- ②<法妙童子(ほうみょうどうじ)>, 袋綴本 3冊, 29・0×23・7センチの大型奈良絵本, 絵は、上冊7図・中冊8図・下冊6図, 紺地金箔散らし金泥表紙。料紙は鳥の子, 関与三兵衛旧蔵本, 天理図書館.
- ③<法妙童子(ほうみょうどうじ)>, 奈良絵横本2冊(下巻欠), 岩瀬文庫.

29)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나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1991)의 <심청전> 조를 보면 김태준이 <심청전>의 인도 불전계 근원설화로 지적한 작품이 <전동자 설화>와 <묘법동자설화>라고 되어 있다. 뒤이어 1998년에 나온 『국어국문화학자료사전』(이응백·김원경·김선희, 한국사전연구사, 1998)에서도 양상은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同系の伝本としては、天理図書館(写本1冊)、岩瀬文庫(奈良絵横本2冊[下巻欠])がある。

[자료4] 천축(天竺) 파라내국(波羅奈国)의 단비리장자(檀毘梨長者)는 외아들이 구렁이의 제물로 뽑혔기 때문에 대신 인신공희가 되어줄 사람을 찾아 길을 떠났다. 사위국(舍衛国)에 엄마와 둘이서 살던 법묘동자(法妙童子)는 어머니의 애처로운 모습을 보고 엄마의 부재중에 자신을 백 냥에 단비리장자에게 팔았다. 법묘동자가 제물로 바위굴에서 ㉗경문(經文)을 외우자 보살이 강림하고 구렁이는 열여섯살의 남자가 되어 떠난다. 이 소문을 들은 황제는 법묘동자를 맞아들여 자리를 물려주고 어머니를 찾아내어 행복하게 살았다는 염불공덕담이다. 무로마치 시대에 많이 만들어진 옛날 무로마치 이야기 중의 하나이다.³⁰⁾

[자료3]-①은 대형나라그림책(大型奈良絵本)으로 존재하며, 일본 국문학 연구자료관(国文学研究資料館)에 소장되어 있다. 동계 이본이 [자료3]-②의 천리대도서관(千里大圖書館)에 사본 1책으로 소장되어 있고, [자료3]-③의 이와세문고(岩瀬文庫)에 나라회횡본(奈良絵横本) 2책(하권 결)이 소장되어 있다. 김태준이 본 것이 바로 [자료3]-①의 대형나라그림책본으로 추정된다.

[자료4]는 이본들 간에 공통된 거개의 줄거리이다. [자료4]을 보면 [자료2]-①의 <전동자>와 마찬가지로 인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홀어미와 함께 가난하게 살던 법묘동자가 모친을 위해 자신을 구렁이(大蛇)의 인신공희 대상으로 스스로 몸을 팔았다가 불경 독경(讀經)의 힘으로 구렁이를 물리치고 황제의 자리를 물려받았다는 이야기다. <심청전>과 인신공희를 매개로 하는 희생효행 자기실현담을 공유하고 있으나 개인화소는 존

30) “天竺の波羅奈国の檀毘梨長者は、一人子が大蛇の生贄に選ばれたため、身替わりを求めて旅に出る。舍衛国に母と二人で暮らす法妙童子は、母の痛ましい姿を見かね、母の留守に我が身を百兩で長者に売る。童子が生贄となり、岩屋で經文を唱えていると菩薩が君臨し、大蛇は十六歳の男子となって去ってゆく。この噂を聞いた帝は童子を迎え、位をこれに譲り、母を探し出し幸せに暮らす。……という、念仏功德譚。室町時代に多く作られたお伽草子(室町物語)の一つである。”、<法妙童子>、国文学研究資料館 所蔵資料紹介。

재하지 않는다. 희생효행이 부친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친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심청전>은 물론 앞서 살핀 북전 불경계 <전동자 설화>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자료4]을 보면 <법묘동자>의 판본이 만들어진 것은 에도시대지만 이야기 자체가 만들어진 것은 무로마치 시대에 만들어진 무로마치물어(室町物語)로 설명되고 있어서 일본 내의 창작물일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서사주체의 자기실현담이 모친을 주된 관련자로 하여 전개되는 <목련구모설화>와 같은 남전계 인도 불전계 설화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실제로 12세기에 성립된 일본의 『곤자쿠모노가타리집(今昔物語集)』은 천축부(天竺部)에 <목련구모설화>류를 대거 편재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자료4]에 등장하는 서사주체의 이름인 법묘가 북전계 불경인 『묘법연화경』과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는 사실이다. 법묘장자의 자기실현 과정이 모친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북전 불경계 설화와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 구령이로 상징되는 악을 불법으로 감화시키는 수단으로 서사주체가 동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불경([자료4]-㉞)의 정체가 무엇이나에 따라 모친과의 상호관련성이 지니는 의미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모친을 위해 인신공희의 희생효행으로 자기실현을 완수하게 되는 수단인 불경이 북전 불경인 『묘법연화경』이라면, <법묘동자설화>는 12세기에 대거 일본에 유행한 <목련구모설화>류를 통해 유포된 남전 불경의 불법원리를 북전계 불경으로 뒤집어서 북전 불법의 우월함을 강조하기 위해 성립된 북전 불경계 설화가 된다. 이행형태는 <법묘동자설화>에서는 악하게 묘사되지 않은 친모를 남전 불경계 <목련구모설화>처럼 악모화 하여 북전 불경으로 악모의 악성을 제압함으로써 북전의 불법을 현세에 유포시키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여기서 계모형 서사는 악모라는 캐릭터를 선한 친모와 악한 계모로 분화시켜서 서사적인 강렬함을 획득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현했을 가능성이 있다. <소야희 설화>와 비교함으로써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소야희설화>

<소야희설화>는 김태준에 의해 <전동자설화>·<법묘동자설화>와 함께

<심청전>의 직접적인 근원설화의 하나로 언급³¹⁾된 바 있는데, 여성주체의 희생효행을 통한 자기실현이 인신공희화소·개안화소와 함께 나타난다는 <심청전>과의 유사성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근원설화 후보가 된다. 문제는 김태준·사재동에 의해 각각 인도 소재 <심청전> 근원설화로 소개되었던 <전동자설화>·<법묘동자설화>나 <목련구모설화>와는 달리 일본 설화인 <소야희설화>가 어떻게 한국 작품의 근원설화가 될 수 있느냐다. 즉, 문명전파의 일반적인 경로가 인도·중국에서 한국을 거쳐 일본 열도로 이어진다고 할 때, 구체적인 유입 사실에 대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일본설화가 한국 작품의 근원설화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봤다시피 <전동자설화>·<법묘동자설화>마저도 김태준의 소개와는 달리 인도설화가 아니라 일본 불전계 설화였기 때문에 결국 김태준은 한국에서 향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일본설화 세 편을 <심청전>의 직접적인 근원설화로 제시했던 것이 된다.

그렇다면 김태준은 태생적으로 <심청전>의 직접적인 근원설화가 될 수 없는 일본설화 세 편을 나란히 <심청전>의 근원설화로 제시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보아야 할까. 만약, <소야희설화>마저도 불전계 설화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김태준은 비록 의식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나 사재동에 앞서서 불전계 설화 세 편을 <심청전>의 간접적인 근원설화로 제시했었던 것이 된다. 북전계와 남전계로 대별되는 인도 불전계 설화가 인(印)·중(中)·한(韓)·일(日)로 유통되는 거시적인 맥락 속에 <소야희설화>를 포함한 일본 불전계 설화와 <심청전>의 관련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태준이 『조선소설사』에서 제시한 일명 김태준본 <소야희설화>가 현재까지 일본에 전승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소야희설화>의 네 이본 계열 중 어디에 속하는지부터가 문제거리다. <소야희설화>의 각 이본들과 <심청전>과의 관계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료5] <小夜姫(さよひめ)>

①<小夜姫のさうし(さよひめのさうし)>, 赤木文庫藏, 古写本,

31) 김태준,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一冊(橫山重·松本隆信 編, 『室町時代物語京大成』6, 角川書店, 1978, 177~186쪽.)

②<小夜姫ナラフェボン(さよひめのナラフェボン)>, 奈良絵本 京都大学文学部藏, です. 写本, 列帖綴, 上中下三冊からなっています. 製作年, 製作者, 書写者ともに不詳です(島津久基 編, 『近古小説新纂初輯』, 中興館, 1937, 125~158쪽.)

③<まつら長者(まつらさよひめ)>, 東洋文庫本.

㉗上方板

説經正本 山本九兵衛刊本 六段, 池田金太郎氏·國會藏, 寛文元年刊(橫山重 編, 『説經正本集』1, 角川書店, 1968, 163~180쪽 ; 室木弥太郎 校注, 『説經集』, 新潮日本古典集成8, 新潮社, 1977, 347~389쪽)

㉘江戸板

鱗形屋孫兵衛板, 東京芸大·京都大藏, 宝永初年頃刊(橫山重 編, 『説經正本集』1, 角川書店, 1968, 181~190쪽.)

④ <小夜姫のじょうり(さよひめのじょうり)>

㉗<竹生島辨才天御本地>, 大湯平治郎本, 栗原郡一迫村人向屋敷, 天保四年, 齋 藤報恩會藏 七段(『奥浄瑠璃集成(一)』四冊本の第一集, 福田 晃·神田洋·真下美弥子, 『伝承文学資料集成』10, 平成12年7月)

㉘<松浦佐夜姫一代記>, 大松澤村油屋本, 東北大圖書館藏 七段

㉙<竹生島弁才天由来記>, 福室村菊地範右衛門本, 藤報恩會藏 七段, 元治二年(『奥浄瑠璃集成(一)』四冊本の第一集, 福田 晃·神田洋·真下美弥子, 『伝承文学資料集成』10, 平成12年7月)

[자료6] 예전 大和松浦谷壺坂에 松浦長者라는 착한사람이 觀世音에 빌어 小夜嬉라고 이름지은 玉女를 나흐니 姬의 네 살적에 長者는 三十六歲를 一期로 하고 죽고 예전 榮華는 점점 호터진다. 姬가 열여섯살에 아버지의 菩提를 弔喪코저 하야 몸을 팔고저 하얏다. 陸奥國에 여러해 묵은 大蛇가 橫暴하는 池이 잇스니 蛇神에 供코저 年一次씩 美女를 던져 生贖로 바티는 것이 地方의 慣例이었다.

今年 차례에 當한 것은 그 地方에 遺德한 里長의 獨女이엇지만 그 愛女를 憐惜히 녀여 代身에 生贖로 너홀 女子를 求하였다. 小夜姬는 砂金五十兩에 몸을 팔기를 許諾하고 아버지 祭를 爲하여 五日間간의 猶豫를 엇고 집에 돌아오니 어떤 일인지 모르는 어머니의 깃봄은 比할데 업섯다. 五日동안이라는 괴한이 지나가고 姬는 집을 떠나는 最後의 瞬間에 할수업시 어머니에게 實狀을 告하니 驚倒한 어머니는 痛哭ᄡᄢ테 눈이 문히졌다. 姬는 悲壯한 覺悟로 池邊에서 最後를 기다렸다. 神主가 祝詞를 올리자 天地가 진동하고 百尺大蛇가 現신하니 姬는 可憐한 自己의 家情을 말하면서 不經을 외였더니 大蛇는 處女의 姿色으로 變하여 또한 말하되 ㉞“妾도 伊勢二見浦의 女兒 繼母에게 謫게 보여 生贖로 못에 들어 怨念 蛇身이 되고 池主가 되어 九百十九年 동안에 生贖八百餘人을 먹었다.”라고 하면서 姬에게 龍宮 第一 가는 如意寶珠를 드렸다. 大蛇는 姬를 大和國으로 보내고 나니 大蛇는 本地壺坂의 觀音이었다. 姬가 郷土를 차저 如意寶珠를 갖다가 대언즉 어머니의 눈은 열리고 母女對面의 즐거운 눈물에 적섯다. ㉟姬는 大和國司와 結婚하여 數子를 엇고 不老不死의 德을 가져 近江國 竹生島의 辨才天女가 되었다.³²⁾

[자료5]은 현재까지 일본에 전승되고 있는 <소야희설화>의 이본들인데, 여기에는 오토기조소시(お伽草子)·나라에혼(奈良絵本)·셋쿄부시(説経節)·조루리(浄瑠璃)의 네 계열³³⁾이 존재한다. [자료5]-①의 오토기조소시계 <소야희

32) 김태준, 「조선소설사」 36, 『동아일보』, 1931.01.13.

33) <소야희설화>의 이본계열에 관한 선행연구는 야노유리코(<사요히메 설화와 심청전>, 『비교민속학』10, 1993, 143~172쪽)와 요시오카 히로토(<한국의 <심청전>과 일본의 <소야희>의 비교연구>, 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전자의 야노유리코는 3계열설을, 후자의 요시오카 히로토는 4계열설을 제시했다. 야노유리코의 3계열설은 오토기조소시(お伽草子)·나라에혼(奈良絵本)·셋쿄부시(説経節)로 구성된 작 작품들의 계열분류가 정치한 대신 조루리(浄瑠璃) 계열만 빠져있고, 요시오카 히로토의 4계열설은 조루리 계열을 포함하고는 있되 세부 작품들의 계열분류에 오류가 있다. 요시오카 히로토의 계열분류도에서 확인되는 오류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오토기조소시(お伽草子)·나라에혼(奈良絵本) 계열 분류의 오류이다. 요시오카 히로토는 『近古小説新纂初輯』 소재본 <小夜姬(さよひめ)>를 <小夜姬のさうし(さよひめのさうし)>와 같은 계열의 독본으로 분류했다. 확인

설화>(<小夜姫のさうし(さよひめのさうし)>)는 현재 아카기문고(赤木文庫)에 소장되어 있으며, 14세기 무로마치(室町) 시대에 생겨난 단편이야기인 모노가타리 소오시(物語草子)³⁴)에 속한다. [자료5]-②의 나라에혼계 <소야희설화>(<小夜姫(さよひめのナラフェボン)>)는 경도대학 문학부에 소장되어 있는 무로마치시대 그림책본으로, [자료3]-①의 <법묘동자설화>의 대형 나라 그림책본과 같은 15세기 후반기의 이본이다. 한편, [자료5]-③의 셋교부시계 <소야희설화>(<まつら長者(まつらさよひめ)>)는 특히 <まつら長者(まつらさよひめ)>란 제명으로 전하며 동양문고에 소장되어 있는데, 상방본([자료5]-③-⑦)과 강호본([자료5]-③-⑭)의 2종이 존재한다. 셋교부시란 부처나 보살의 유래를 설명하는 설경(說經)이 음곡화 된 이야기³⁵)로, 생겨난 시기는 [자료5]-①의 오토기조소시계처럼 14세기 무로마치시대이지만 [자료5]-③의 셋교부시계 <소야희설화> 2종의 간기는 각각 1661년(寬文元年)과 17404년(寶永初年)로 되어 있어서 17세기에서 18세기 전반기에 걸쳐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료5]-④의 조류리계 <소야희설화>(<小夜姫のじょうり>)는 인형 가타리모노(語り物) 유형으로, 19세기 전반기에서 중반기 사이의 간본들이다. [자료5]-④-⑦의 <竹生島辨才天御本地>의 간기인 天保四年은 1833이고, [자료5]-④-⑭의 元治初年은 1864년이다. 조류리는 박자에 맞춰서 강창하는 이야기로 [자료5]-②의 나라에혼 그림책과 같은 15

결과 『近古小説新纂初輯』 소재본 <小夜姫(さよひめ)>는 赤木文庫藏古写本과는 다른 奈良絵本 그림책이 맞다. 요시오카 히로토도 일련의 후속 연구에서는 시야백합자(1993)의 연구와 똑 같이 <小夜姫のさうし(さよひめのさうし)>·<まつら長者(まつらさよひめ)>와 함께 <小夜姫(さよひめ)>를 독립된 계열로 분류해놓고 있다. 두 번째는 나라에혼(奈良絵本)·셋교부시(說經節) 계열분류의 오류이다. 요시오카 히로토도는 셋교부시 계열의 간략본에 해당되는 <つほさか>·<つほさかのさうし>·<つくしまのほんし> 이본들을 나라에혼 계열로 분류해놓는 대신 나라에혼 계열로 분류되어야 할 『近古小説新纂初輯』 소재본 <小夜姫(さよひめ)>를 오토기조소시 계열로 분류해놓았다. <つほさか>·<つほさかのさうし>·<つくしまのほんし> 이본들은 阪口弘之의 <東洋文庫本「まつらさよひめ」(紹介と翻刻)>(『人文研究』34-4, 大阪市立大学人文研究, 1982, 161~181쪽.)에서 셋교부시 계열 <まつら長者(まつらさよひめ)>의 요약본인 것으로 밝혀져 있다.

- 34) 한국일어일문학회, 『모노가타리에서 하이쿠까지』, 글로세움, 2003, 222~258쪽.
35) 요시오카 히로토, <판소리와 說經節·淨瑠璃의 비교연구>, 『동아시아고대학』 6, 2002, 137쪽.

세기에 생겨나서 16세기에는 사미센 악기 반주에 맞춘 서민문학으로, 17세기 부터는 인형 조루리로 바뀌어 18세기에는 도시 신흥상공업자인 조닝(町人) 문학으로 전성기를 맞았다.³⁶⁾

이러한 <소야희설화>의 네 계열 이본군에서 공통된 줄거리는 부자였던 아버지 마츠우라 장자가 죽은 후 망한 집안을 소야희가 구렁이의 생지가 되는 인신공희의 희생효행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고 모친을 개안시킨 후에 변재친 녀가 된다는 것이다. <소야희설화>는 개안이 모친개안으로 나타난다는 차이점 외에는 용궁재생화소를 제외한 희생효행화소·인신공희화소·개안화소의 구성이 <원홍장설화>와 동일하다. 대신, 서사주체의 희생효행에 의한 자기실현이 부친이 아니라 모친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법묘동자설화>와 같은 양상을 보여준다.

[자료6]은 김태준 소개본 <소야희설화>이다. 김태준이 봤던 <소야희설화>가 [자료5]의 이본 계열군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자료6]-㉗의 계모담과 [자료6]-㉘의 혼인담의 유무에 있다. 계모담은 소야희를 생지로 삼은 구렁이의 전생담에 등장하는 계모화소이고, 혼인담은 소야희가 맹모(盲母)를 개안시키고 집안을 회복시킨 후에 대화국(大和國) 국사(國司)와 혼인하는 화소이다. 계모담·혼인담을 기준으로 하여 [자료5]의 이본군을 재분류 해보면 다음과 같다.

	<小夜姫のきうし> [자료5]-①	<小夜姫ナラフェボン> [자료5]-②	<まつら長者> [자료5]-③	<小夜姫のじょうり> [자료5]-④
계모담	×	○	○/×	×
혼인담	×	○	×/○	○

위의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계모담과 혼인담이 모두 들어 있는 이본은 [자료5]-②의 15세기 나라회본 <소야희설화>이다. [자료5]-③의 셋류부시계 <소야희설화>는 상방판([자료5]-③-㉗)과 강호판([자료5]-③-㉘)의 양상이 각기 다른데, 전자에는 계모담은 등장하나 혼인담이 없으며, 후자에는

36) 인형 조루리 문학의 전개사에 대해서는 정순분의 『일본고전문학비평』(2006, 제이앤씨)를 참조해 주기 바람.

계모담은 없으나 혼인담³⁷⁾은 들어있다. 한편, [자료5]-④의 조루리계 <소야희설화>에는 계모담이 없고 혼인담만 등장한다. 특히, 계모담의 경우 구령이의 전생담은 등장하지만 계모화소가 들어있지 않다는 점에서 [자료5]-①의 오토기조소시계 <소야희설화>와 동일한 양상을 보여준다. 혼인담이 없는 오토기조소시계와 상방본 셋쿄부시계 이본을 일차로 제외하고 나면 나라회본계와 강호본 셋쿄부시계, 그리고 조루리계 이본이 남는데, 계모화소의 유무에 따라 이차로 강호본 셋쿄부시계와 조루리계 이본을 제외하고 나면 나라회본계 이본이 최종적으로 남게 된다. 따라서 김태준이 참조했던 <소야희설화>는 [자료5]-②의 15세기 나라회본 <소야희설화>³⁸⁾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김태준 소개본의 저본이 나라회본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소야희설화>의 이본 전개사에서 나라회본은 서사주체의 희생효행에 의한 자기실현이 부친과 관련해서 전개되는 초기 이본에서 모친의 문제로 초점이 바뀌는 후기 이본의 시작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초기작인 오토기조소시계 이본은 소야희가 관음보살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응보로 죽은 아버지 마츠우라 장자의 제사를 모시기 위해 자신을 구령이의 인신공희로 팔았는데, 『법화경』을 독송한 법력으로 구령이를 해탈시키고 다시 장자가 되어 그 동안 충격으로 맹안이 되었던 모친을 개안시키고 변재천이 되며 모친과 해탈한 구령이 처녀는 각각 약사관음과 호판관음이 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부자였던 아버지 마츠우라 장자가 죽은 후 망한 집안을 소야희가 인신공희의 희생효행으로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점에서 오토기조소시계 <소야희설화>는 기본적인

37) 이 점은 田中美繪의 「説經淨瑠璃『まつら長者』諸本の検討」(『國語國文』 769, 1998. 49~59쪽)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38) 야노유리꼬도 전개논문(1993) 153쪽에서 나라회본이 김태준 소개본 <소야희설화>의 저본일 것임을 추정해 놓았으나 추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요시오카히로도또는 전개논문(2006) 76쪽에서 야노유리꼬가 전개논문(1993)에서 제시해놓은 이본비교 내용을 인용한 뒤 혼인담을 준거로 하여 야노유리꼬의 나라회본 저본설을 재확인해 놓았다. 문제는 혼인담만으로는 나라회본이 김태준 소개본 <소야희설화>의 저본임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다. 왜냐하면 혼인담이 등장하는 이본이 나라회본 외에도 또 있기 때문이다. 혼인담을 포함하고 있는 강호본 셋쿄부시계와 조루리계 이본과 김태준 소개본의 유일한 차이는 계모화소이다. 따라서 계모화소를 차별적인 준거틀로 할 때만이 김태준 소개본 <소야희설화>의 이본계열이 확정된다고 할 수 있다.

으로 희생효행의 자기실현이 부친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버지의 악업 구제를 위한 희생효행과 자기실현이 <소야희설화> 초기 이본 서사의 근저를 이루고 있다는 것으로, 일본의 <전동자설화>나 국내의 <원홍장설화>와 같은 양상을 보여준다. 실제로 [자료5]-①의 오토기조소시계 이본에서 모친맹목(母親盲目) 화소는 소야희가 구렁이의 해탈과 부친 악업의 구제를 함께 수행하고 고향으로 귀환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삽입된 것으로 되어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버지의 악업이 관음에 대한 파약(破約)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북전계 위경인 『관음경』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자료5]-①의 오토기조소시계 이본에서는 모친과 구렁이 처녀의 현신까지 관음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관음경』과의 관련성은 <원홍장설화>와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볼 수 있다.

<소야희설화>와 북전계 불경과의 관련성은 『관음경』으로 그치지 않는다. 아버지의 악업을 구제하기 위한 매개가 악녀신인 구렁이를 불법으로 해탈시키는 것인데, 이때 아버지를 구제하는 수단으로 작중에서 등장하는 불경이 바로 북전계 불경인 『법화경』, 『묘법연화경』 즉 이다. <원홍장설화>가 관음신앙의 『관음경』을 매개로 『묘법연화경』과 관련되어 있었던 것과 달리, <소야희설화>는 『관음경』, 『묘법연화경』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앞서 살펴보았던 <전동자설화>·<법묘동자설화>·<원홍장설화>·<소야희설화>가 모두 인도진경인 『법화경』에 가탁하여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창작된 위경설화가 된다. <소야희설화>는 이 중에서 <전동자설화>·<법묘동자설화>와 함께 일본에서 만들어진 『묘법법화경』계 위경설화가 된다.

그런데 오토기조소시계 이본의 후반부에 모친맹목 화소가 삽입되면서 <소야희설화>는 <전동자설화>·<원홍장설화>와 같은 북전 불경계 위경설화의 특수성을 넘어서 남전 불경계 위경설화의 특징을 포함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전 불경계 위경설화의 모친구제가 북전 불경인 『묘법법화경』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남전계 불경 모친구제설화의 서사구조를 북전계 불경을 통해 북전계 불경 부친구제설화로 뒤집어 놓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소야희설화>의 서사주체를 남성으로 바꿔놓은 형태인 <법묘

장자설화>의 서사주체가 모친개안을 위한 희생효행의 자기실현 과정에서 동원했던 불경([자료4]-㉔) 역시 『묘법법화경』으로 볼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아울러 15세기 후반기작인 <법묘장자설화>에 선행하는 14세기 <사요히메노 소시>([자료5]-①)가 부친구제를 서사의 기본틀로 하고 있음으로 미루어보아 <법묘장자설화> 역시 원래는 부친구제에 관한 이야기였으나 모친구제로 이행된 형태일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도 있겠다.

실제로 15세기 후반기 나라회본계 <소야희설화> 이본([자료5]-②)에서는 관음에 대한 부친의 위약과 징치에 관한 문제가 생략되는 대신 선모(善母) 친모에 대립되는 계모화소가 투입되고 있다. 이 나라회본계 이본에서는 구령이의 전신이 악한 계모에 의해 구령이의 인신공희 대상으로 바쳐진 처녀였다는 전생담이 편입되어 계모화소가 확장되고 있다. 계모형 서사가 사요히메와 계모 간의 관계로 직접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소야희가 전시대 인신공희였던 구령이 처녀의 환유법적인 환생체라는 점에서 구령이 처녀와 계모의 관계는 곧 소야희와 허구적인 계모의 관계로 비의된다고 할 수 있다. 소야희의 환유법적인 악한 계모는 맹목이었다가 개안하는 선한 친모와 우회적인 대립관계를 형성하므로, <소야희설화>의 15세기 이본에 삽입되어 있는 계모형 개안화소 자체는 남전 불경계 계모형 개안화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새삼 주목되는 것은 김태준이 저본으로 삼은 <소야희설화> 이본의 차별적인 특수성 중의 하나가 바로 계모화소라는 사실이다. 김태준이 계모화소가 등장하지 않는 여러 이본들을 놔두고 특히 나라회본을 <심청전>의 근원설화가 되는 <소야희설화> 텍스트로 선택한 배경에는 계모화소가 <심청전>의 근원설화의 차별적인 요건이라는 인식이 내재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Ⅲ. 불전계 계모형 개안설화의 향유권과 완판본 <심청전>의 계모형 서사 형성 배경

이제 남은 문제는 완판본 <심청전>의 향유지역권 속에서 남전 불경과 관련된 계모형 개안화소를 포함한 설화가 전승되었던 사실을 찾을 수 있는나

것이 될 것이다. 해당 사례로 전라도를 주된 향유지리적 배경으로 하는 <우목낭상설화(寓目囊箱說話)>를 들 수 있다.

<우목낭상설화>의 공통된 즐거리는 부친이 출타한 사이에 실명한 부친을 위해 산 사람의 눈이 필요하다는 편지를 조작한 계모에 의해 전처자식이 자신의 두 눈을 빼주고 실명하여 떠돌다 귀가하던 부친과 악기소리로 재회하여 두 눈을 회복하고 계모는 징치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우목낭상설화>는 그 동안 <콩쥐팍쥐설화>나 <손 없는 색시 설화>와 같은 유형의 계모형 설화로 분류³⁹⁾되어 왔다. 물론, <우목낭상설화>가 계모·전처자식 사이의 갈등과 계모징치를 형상화 한 설화 유형인 것은 맞다. <우목낭상설화>의 서사주체인 전처자식의 자기실현이 계모와의 대결결과로 이루어지는 유형에 속한다는 것이다. 대신, 시련이 계모의 모해에 의해서만 전적으로 주어지는 <콩쥐팍쥐설화>·<손 없는 색시 설화>와는 달리, <우목낭상설화>의 경우는 서사주체의 시련이 부친에 대한 희생효행의 일환이기도 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즉, <콩쥐팍쥐설화>·<손 없는 색시 설화> 같은 작품에서는 서사주체의 부친에 대한 희생효행 문제가 초점화 되어 있지 않는데 비해, <우목낭상설화>에서는 계모의 모해에 의해 서사주체가 부친에 대한 희생효행을 통한 자기실현을 할 계기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우목낭상설화>는 희생효행에 의한 자기실현이 계모화소에 의해 극적인 계기를 얻고 있는 작품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처럼 <우목낭상설화>를 희생효행에 의한 자기실현 서사가 계모화소에 의해 확장된 것으로 본다면, <심청전> 완판본의 그것과 같은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게다가 <우목낭상설화>의 희생효행 대상은 <심청전>처럼 부친이며, 희생효행은 역시 <심청전>처럼 개인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물론, 개인의 직접적인 주체가 부친이 아니라 희생효행의 서사주체라는 점에서 <심청전>과 다른 양상을 보여주지만, 이러한 서사주체의 개인이 실명했다고 하는 부친의 맹목을 개안시켜주기 위한 대리맹목(代理盲目)의 희생효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친개안의 변이형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즉, <우목낭상설화>에서 확인되는 서사주체의 자기실현 양상은

39) 김헌선, 「<寓目囊箱> 설화의 구조적 변형과 의의」, 『白鹿語文』 18-19, 2004.

앞서 살펴보았던 북전 불경계 위경설화들의 범주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경판계 한남본 <심청전>의 형성시기에 관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북전 불경계 위경설화들과 같은 유형성이 <우목낭상설화>에서 확인된다고 볼 수 있다. 대신, <우목낭상설화>가 북전 불경계 위경설화들과 차별화 되는 지점은 계모서사로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서사주체의 희생효행에 의한 자기실현이 계모서사와 관련되는 것은 앞서 확인했다시피 남전 불경계 위경설화들에서 확인되는 특징이다.

이 지점에서 <우목낭상설화>가 실제로 북전과 남전 중 어느 한 계열에 속하는 불경과 관련된 설화인가가 새로운 문제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부친개안과 관련된 서사주체의 희생효행이 계모서사로 인해 계기화 되는 <우목낭상설화>와 동일한 인도 불전설화는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계모가 부친의 편지를 위조하여 전실자식의 두 눈을 빼서 맹목을 만들었다가 악기소리로 재회한 부친에게 징치를 당하고 전실자식이 개안하는 내용을 <우목낭상설화>와 공유하는 인도 불전설화는 찾을 수 있었다. 『육도집경(六度集經)』의 제2장 <계도무극장(戒度無極章)>에 실려 있는 <아육옥식양인연(阿育玉息因緣)>⁴⁰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아육옥식양인연>은 인도 첫 통일제국의 건국조인 아육왕(阿育王:B.C. 268~B.C. 232), 곧 아쇼카(Asoka) 왕이 후처 제시라차(帝尸羅叉)의 모해에 걸려들어 두 눈을 뽑히게 된 아들 법익태자(法益太子)를 구해서 개안시키고 후처를 징치하는 이야기로, 아육왕을 서사주체로 한다. 설화의 제목이 <아육옥식양인연>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육옥식양인연>은 원래 자식이 부모를 구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구제하는 이야기였던 것이다. 이 점에서 『육도집경』 소재 <아육옥식양인연>은 앞서 살펴보았던 『묘법연화경』 소재 <묘법장자설화>처럼 부친이 아들을 구제하는 자애양육(慈愛養育)의 이야기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이 <아육옥식양인연>에는 부친의 맹목을 개안시켜주기 위한 자식의 희생효행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전실자식에 대한 음욕이 좌절된 계모가 복수를 위해 부친의 편지를 위조하여 전실자식의 두 눈을 강제로 빼서 실명시

40) 『六度集經』, 『한글대장경』14, 본연부1, 동국역경원, 2010.

키는 것으로만 되어 있다. 즉, 위조된 부친의 편지 내용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친의 유사맹목(類似盲目) 화소가 <우목낭상설화>에는 있으나 <아육옥식양인연>에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아들의 개안 계기가 악기소리를 통한 부친과의 재회와 부친의 계모징치로 동일해도 두 설화가 지니는 개안의 의미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목낭상설화>에 나타난 아들의 개안은 부친개안을 위해 희생효행하여 자기실현을 한 결과가 되는 반면, <아육옥식양인연>의 그것은 음욕과 복수심에 불타는 계모의 음모에도 불구하고 계모에게 효행하기 위해 자기 두 눈을 희생하여 자기실현 한 결과가 된다. 이처럼 아들의 개안이 지니는 의미가 달라지게 됨에 따라 계모화소의 서사적 위상도 달라지게 되는데, 전자에서 계모 서사는 부가적인 위치에 놓여 있지만, 후자에서는 주도적인 위상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아육옥식양인연>의 개안은 서사주체의 희생효행을 통한 자기실현이 계모인 모친과 관련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남전 불경계 설화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육도집경』은 위경인 『목련경』이 가탁한 『아함경』, <선우태자입해품>이 편재해 있는 『현우경』과 함께 대표적인 부처의 전생 즉, 팔리어로 자타카(Jātaka)라고 부르는 남전계 진경 불경으로, 오(吳) 나라 사람인 강승회(康僧會)에 의해 3세기에 한역되었다. <아육옥식양인연>은 인도 남전 진경에 실제로 들어있던 진경설화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목낭상설화>에서 각각 확인되는 북전과 남전 불경계 설화의 특징 중 후자인 계모화소의 경우는 <아육옥식양인연>과 같은 남전 불경계 진경설화와 관련되어 형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긴다. 바꾸어 말하면 부친맹목에 대한 서사주체의 희생효행을 중심으로 한 <우목낭상설화>의 근간서사에 <아육옥식양인연>과 같은 인도 남전계 진경설화의 계모화소가 유입되어 현재의 <우목낭상설화>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전하는 <우목낭상설화>의 내용들을 검토해보면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기술되어 있거나 한국에서 일어났지만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로 기술되어 있는 각편이 4편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⁴¹⁾한다. <우목낭상설화>의 향유층들이 이 이야기가

41) <우목낭상-상자 속에 넣어 둔 눈>(구연자:김장수, 채록자:조희웅), 『한국구비문학대계』1-1, 1979 ; <분처 아들 눈 뵈 계모>(구연자:박중대, 채록자:박순호), 『한국구비문

어떤 형태로든 중국과 관련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대목으로 보인다. <아육육식양인연>이 수록된 『육도집경』이 3세기에 중국에서 한역된 인도 진경설화라는 사실을 상기해 본다면, 이는 <우목낭상설화>가 북전 불경계 설화와 관련된 서사적 기반 위에 중국을 거쳐 유입된 <아육육식양인연>과 같은 남전 불경계 진경설화의 계모화소가 편입되어 이루어졌다는 형성과정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목낭상설화>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북전 불경계 설화적 특징과 남전 불경계 설화적 특징의 결합이 중국에서의 한역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국내 유입 이후의 토착화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인가의 문제이다. 전자는 <아육육식양인연>이 3세기 중국에서 한역되는 과정에서 북전 불경계 설화의 특징을 수용하여 <우목낭상설화>와 같은 형태를 형성했으며, 그것이 그대로 국내로 수용된 것이 <우목낭상설화>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려면 <우목낭상설화>와 똑같은 텍스트들이 중국에서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까지는 확인된 텍스트가 없다. 오히려 현재 중국에서 확인 가능한 것은 남전계 진경설화인 <아육육식양인연>의 특수한 서사 구조를 그대로 수용하되 제목과 등장인물의 이름만 변경한 문헌설화들의 존재이다.

예컨대, 6세기 양무제(梁武帝) 때 여러 경전들을 취합하여 찬집된 『경률이상(經律異相)』 권33에는 <구나라태자실육안득혜안(鳩那羅太子失肉眼得慧眼)>이란 제목으로 동일한 텍스트가 실려있고⁴²⁾, 7세기 당(唐) 나라 때의 현장법사(玄奘法師)가 인도 구법여행 중 견문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 권3에는 <달차시라국(呬叉始羅國)>이란 제목으로 역시 동일한 텍스트가 수록⁴³⁾되어 있다. 두 중국 문헌설화 이본에 모두 등장하는 구나라(鳩那羅)는 바로 <아육육식양인연>에 등장하는 법익태자의 별명으로 두 눈이 인도새 구나라처럼 아름답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대당서역기』의 제

학대계』6-4, 1985. ; <중국서 장원급제한 성삼문>(구연자:강화원, 채록자:최정여), 『한국구비문학대계』7-14, 1982. ; <우목낭상>(구연자:김만갑, 채록자:임재해), 『한국구비문학대계』7-2, 1980.

42) 『경률이상』, 송성수·하혜정 역주, 동국역경원, 2012.

43) 『대당서역기』, 김규현 역주, 글로벌콘텐츠, 2013.

목인 달차시라국(咄叉始羅國)은 <아육옥식양인연>에서 아육왕이 후처 제시라차의 모해로부터 법익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로부터 떼어놓고자 보낸 변방국가의 이름이다. <아육옥식양인연>이 제목에서부터 아육왕을 내세웠다면 동일한 내용으로 된 텍스트가 중국 문헌에 수록되는 과정에서 법익태자를 제목에 내세우는 방향으로 변이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중국 한역본들이 국내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복전 불경계 설화적 특징과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법익태자의 별명과 귀양국을 중심으로 바뀐 한역본들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인도 진경의 소종래는 잊혀진 대신 중국 한역본에서 한 차례 이루어진 법익태자 중심의 초점화가 복전 불경계 설화의 희생효행서사와 결합되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는 관점이 된다. 실제로 <아육옥식양인연>의 한역본 중 『경률이상』본 <구나라태자실육안득혜안>은 고려말기인 1243년(고종 30)에 고려대장경의 일부로 인쇄됨으로써 국내 유입 시기가 명확히 고증된다. <우목낭상설화> 향유층의 대부분이 이야기의 소종래가 중국과 관련있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은 <우목낭상설화>가 아육왕을 서사주체로 한 인도 진경본이 아니라 법익태자를 중심으로 서사를 수용하고자 한 중국 한역본을 모태로 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근거로 보인다. <우목낭상설화>는 아예 법익태자를 서사주체로 놓고 인도 진경본을 희생효행담으로 재구성한 변이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제목에서부터 법익태자의 희생효행을 상징하는 “우목낭상”이 제시되어 있는 것도 중국 한역본을 법익태자를 서사주체로 한 희생효행서사로 재구성한 한국 이본의 특수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인도 남전계 진경설화인 <아육옥식양인연>의 중국 한역본을 국내로 수입하여 부친에 대한 희생효행을 통한 자기 실현서사로 재구성 하는 과정에서 서사적 롤모델이 되었던 것이 바로 복전 불경계 설화였을 가능성을 설정해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우목낭상설화>는 <법묘동자설화>나 <소야희설화>처럼 남전 불경계와 관련된 복전 불경계로 분류될 수 있겠다.

이러한 <우목낭상설화>는 개인화소가 서사주체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심청전>과 다르고 <선우태자설화>와 같은 양상을 보여준다. 대신, 맹인이 악모인 계모에 의해 야기됐다는 점에서 <심청전> 완판본의 계모서사와

관련되는 측면이 있다. <심청전>의 핵심적인 근원설화는 아니나 <선우태자 설화>처럼 <심청전>의 관계설화로 위치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우목낭상설화>에 완전한 형태의 계모서사가 들어 있다는 것인데, <심청전>의 초기 이본인 경판계 한남본 이본에서는 없었으나 송동본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여 완판본에서 확고한 위상을 구축한 계모서사의 소종래를 <우목낭상설화>에서 확인되는 계모서사와 관련시켜 볼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정에 힘을 보태주는 것은 <우목낭상설화>의 분포도가 된다. <우목낭상설화>는 현재까지 총 6편의 존재가 보고되어 있는데, 분포권역은 서울 144), 전라남북도345), 경상북도246)이다. 인구의 이동에 따라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보이는 서울권역을 제외한다면, 주된 전승권역은 전라남북도가 되고 부전승권역은 경상북도가 된다.⁴⁷⁾ 이처럼 계모서사를 포함하고 있는 <우목낭상설화>의 주된 분포지가 전라남북도라는 사실은 복전 불경계 위경설화와 관련되어 있던 초기 <심청전>이 완판계로 이행되는 과정에 <우목낭상설화>과 같은 남전 불경계 설화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즉, 용궁재생설화의 부재를 제외하고는 경판본 <심청전>의 제반 근원화소와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다가 서사주체의 성별까지 같은 <원홍장설화>에서 배태된 초기 <심청전>이 전라도 일대를 향유지역권으로 하는 남전 불경계 <우목낭상설화>와 결합되는 과정에서 완판본 <심청전>이 탄생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

복전 불경계 설화와 남전 불경계 설화의 구체적인 결합시기가 마지막으로

44) <우목낭상-상자 속에 넣어 둔 눈>(구연자:김장수, 채록자:조희웅), 『한국구비문학대계』1-1, 1979

45) <우목낭상>(구연자:이씨, 채록자:임석재), 『한국구전설화』7, 임석재, 1990. ; <우목낭상>(구연자:박태섭, 채록자:임석재), 『한국구전설화』7, 임석재, 1990. ; <본처 아들 눈 뺨 계모>(구연자:박중대, 채록자:박순호), 『한국구비문학대계』6-4, 1985.

46) <우목낭상>(구연자:김만갑, 채록자:임재해), 『한국구비문학대계』7-2, 1980. ; <중국서 장원급제한 성삼문>(구연자:강화원, 채록자:최정여), 『한국구비문학대계』7-14, 1982.

47) 경상북도에서 2편의 각편이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눈 셋김이 개안 곳으로 현행 전승되고 있는 <심청굿>의 전승권역이 경북 영덕·영해 일대의 동해안이라는 사실과도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이 부분은 후속 연구를 준비중이다.

남은 문제가 될 것인데, 현재로서는 남전계 불경과 북전계 불경의 습합이 성행한 18세기 후반기를 거론해 볼 수 있겠다. 18세기 후반기는 남전계 위경인 『목련경』과 북전계 진경인 『묘법연화경』의 불경세계가 융합하여 성립된 감로왕도(甘露王圖)가 대유행한 시기이다. 완판계 <심청전>이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기까지 전라북도 전주에서 인쇄된 이본 계열이라고 할 때, 완판본 <심청전>의 성립 시기는 이처럼 북전·남전계 불경이 습합된 새로운 불교 세계관이 유행하던 시대적 배경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18세기 후반기에 대유행한 북전·남전계 습합적인 불교적 세계관 속에서 <우목낭상설화>와 같은 <심청전> 관련서사의 남전 불경계 계모서사가 초기 경판계 <심청전>에 유입되어 적층됨으로써 완판본 <심청전>이 성립될 수 있는 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IV. 나오는 말

본 연구는 뽕덕어멈이 공유하는 계모형 서사가 <심청전> 속에 편입되게 되었는가의 문제를 규명하고자 했다. 이 아젠다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가 선택한 접근 방법은 뽕덕어멈이 공유하는 계모형 서사가 근원설화에서부터 배태된 <심청전>이 완결된 형태를 구성한 이후에 확장되는 과정에서 삽화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는 관점이다.

지금까지 <심청전>의 근원설화로 알려져 온 <전동자설화>·<법묘동자설화>·<소야희설화>·<선우태자설화>·<목련구모설화>·<원홍장설화>·<황천무가설화>·<효녀지은설화>의 8편을 검토해 본 결과, <전동자설화>·<법묘동자설화>·<소야희설화>·<선우태자설화>·<목련구모설화>·<원홍장설화>의 6편이 북전(北傳)·남전(南傳) 불경계 설화임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심청전>의 불전계 근원설화의 제 계열에 따른 계모형 서사와의 관련성을 검토에서 출발했다. 이들 <심청전> 근원설화 6편의 상호관련양상과 전개사를 검토해본 결과 계모형 서사가 특히 모친과 관련된 개인화소와 일정한 상호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심청전> 근원설화의 모친개안화소가 남전(南傳) 불경계 설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심청전> 근원설화 관련 계모형 서사는 이러한 남전 불경계 모친개안화소를 매개로 남전에 대한 북전의 상대적으로 우월한 감화력을 전파하고자 한 북전(北傳) 불경계 설화의 향유배경 속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해당 계모형 맹인개안화소가 경판계 <심청전>에 투입하여 완판계 <심청전>의 뽕덕어미 서사를 형성해 내게 된 배경을 완판계 <심청전>의 향유공간인 전라도 일대를 중심으로 한 문학지리와의 관련성 속에서 규명해 보았다. 인도 남전계 진경설화가 중국에서 한역된 이후 최종적으로 국내 유입되는 과정에서, 계모의 모해에 직면한 부친의 자식에 대한 자애양육서사가 북전 불경계 설화적 특수성과 결합된 결과 부친의 유사맹목을 개안시키기 위한 자식의 희생효행서사로 재구성된 것이 바로 <우목낭상설화>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북전 불경과 남전 불경의 결합은 18세기 후반기 불교 세계관 체계에서 새롭게 대유행한 신조류였는데, 18세기 후반기부터 전라도 일대에서 판각인쇄 되어 <심청전> 향유사의 새로운 흐름을 형성한 완판본은 이처럼 북전 불경설화와 남전 불경설화가 습합되는 배경 속에서 남전 불경설화의 계모서사가 북전 불경계 설화에 기반한 초기 <심청전>에 투입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窮子喩>, 『妙法蓮華經』, <信解品> 第四.
 <法妙童子>, 国文学研究資料館 所藏資料紹介.
 『私聚百因緣集』, 藤田徳太郎 等編, 『日本精神文化大系』, 金星堂, 1936.
 <玉果顯聖德山觀音寺事蹟>, 『朝鮮寺刹史料』, 조선총독부, 1911.
 『六度集經』, 『한글대장경』 14, 본연부1, 동국역경원, 2010.

<傳童子>, 往信, 『私聚百因緣集』第三卷 第十七話.

권도경, 「<콩쥐팍쥐 설화>를 모녀 농경신들의 경쟁농경신화 이대기구조로 보는 새로운
관점과 비한족계 중국 소수민족의 혼례·장례 민속에 나타난 “혼인-죽음-재생”의
순환론적 인식 배경」, 비교민속학회 2015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15.05.16.
_____, 「고소설 <장화홍련전> 원형서사의 서사적 고정관념과 영화 <장화, 홍련>에
나타난 새로쓰기 서사전략」, 『비교문학』 61, 2013.

현장, 『대당서역기』, 김구현 역주, 글로벌콘텐츠, 2013.

김동욱, 『열두마당의 근원설화 및 성립과정』, 『한국가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61.
_____, 「관소리 근원설화 첩보」, 『대동문화연구』3, 1966.

김성수, 「목련경(目連經)의 성립경위」, 『도서관학논문집』 10, 1983.

김영수, 『필사본 심청전 연구』, 민속원, 2001.

김태곤, 『황천무가연구』, 창우사, 1966.

김태준, 「심청전의 연구」,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김현선, 「<寓目囊箱> 설화의 구조적 변형과 의의」, 『白鹿語文』 18-19, 2004.

김현양, 「조선조 후기 `華夷觀'의 동향과 <적성의전>」, 『연세어문학』 25, 1993.

사재동, 「심청전 연구서설」, 『한국고전소설』, 계명대학 출판부, 1974.

사카구치 히로유키, 「東洋文庫本「まつらさよひめ」(紹介と翻刻)」, 『人文研究』 34-4,
1982.

보 창, 『경률이상』, 송성수·하혜정 역주, 2012.

야노유리코, 「사요히메 설화와 심청전」, 『비교민속학』 10, 1993

요시오카 히로도, 「관소리와 說經節·淨瑠璃의 비교연구」, 『동아시아고대학』 6, 002.

이중서, 「‘전통적’ 계모관의 형성과정과 그 의미」, 『역사와 현실』51, 2004.

인권환, 「적성의전 근원설화연구(根源說話研究)」, 『인문논집』 8, 1967.

장덕순, 「심청전연구」, 『국문학통론』, 신구문화사, 1960.

정순분, 『일본고전문학비평』, 제이앤씨, 2006.

정지영, 「장화홍련전:조선후기 재혼가족 구성원의 지위」, 『역사비평』 61, 2002.

정하영, 「沈淸傳에 나타난 惡人像:뽕덩어미論」, 『국어국문학』 97, 1987.

조순향, 「한국판 부모은중경연구(父母恩重經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7.

최운식, 『심청전연구』, 집문당, 1982.

한국일어일문학회, 『모노가타리에서 하이쿠까지』, 글로세움, 2003.

타나카 요시에, 「說經淨瑠璃『まつら長者』諸本の検討」, 『國語國文』769, 1998.

❖ ABSTRACT

Stepmother Narrative from Southern Buddhist Texts to Root
Folklore <Simcheongjeon> Affiliated with Northern
Buddhist Texts and Formation Course of <Simcheongjeon>

Kwon, Do-kyung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issue how stepmother's narrative was transferred to <Simcheongjeon>. For this agenda, the approach of this paper is described below to determine how Bbaengdeok's stepmother narrative was transferred episodically to <Simcheongjeon>. First, this paper started from the relation between stepmother narrative and <Simcheongjeon> affiliated with each root folk tale in Buddhist text. Among <Jeondongja>·<Bubmyodongja>·<Sayohime>·<Sunwootaeja>·<Mokryugumo>·<Wonhongjang>·<Hwangchunmuga>·<Hoynye jjeun> known as root folk tale until now, this paper investigated whether <Jeondongja>·<Bubmyodongja>·<Sayohime>·<Sunwootaeja>·<Mokryugumo>·<Wonhongjang> was the root folk tale affiliated to Buddhist literature. At that point, stepmother narrative showed relation with opening eyes motive.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text of opening eyes in Buddhist literature is originated from the south. This paper confirmed that <Simcheongjeon>'s stepmother narrative was related to Buddhist literature originated from south.

Next, this paper investigated the background of opening eyes motive of stepmother types. After entering Gyeongpan <Simcheongjeon>, it formed Bbaengdeok narrative of Wanpan <Simcheongjeon> related to Literary geography of Jeollado enjoying space of Wanpan <Simcheongjeon>. There are two evidences for this. The first one is <Woomoknangsang> which was passed down around Jeollado. In the course of sudden Buddhist folklore's flow into the country, it is <Woomoknangsang> that combined stepmother narrative of sudden Buddhist literatur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northern Buddhist literature which was reconstructed into son's filial behavior of northern Buddhist literature to make father's blinded eyes open. The other is the Buddhist trend of the late 18th Chosun when northern Buddhist literature and sudden Buddhist literature were combined. It appeared that stepmother narrative was formed in the Buddhist background of the late 18th Chosun when northern Buddhist literature and sudden Buddhist literature were combined.

Key Words

<Simcheongjeon>, root folklore, stepmother narrative, northern Buddhist scriptures, sudden Buddhist scriptures, wanpan, <Jeondongja>, <Bubmyodongja>, <Sayohime>, <Sunwootaeja>, <Mokryugumo>, <Wonhongjang>, <Hwangchunmuga>, <Hoynyejeun>

논문접수일: 2016년 08월 10일

심사완료일: 2016년 09월 05일

게재확정일: 2016년 09월 06일